

제416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7월16일(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업무현황보고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농협경제지주
 - 농협금융지주
 - 한국마사회
 - 축산물품질평가원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축산환경관리원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한식진흥원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한국임업진흥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부산항만공사
 - 인천항만공사
 - 여수광양항만공사
 - 울산항만공사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국립해양박물관
 - 국립해양과학관
-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추가)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7)(추가)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9)(추가)

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9)(추가)
 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2)(추가)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6)(추가)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8)(추가)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0)(추가)
 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1)(추가)
 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5)(추가)
 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9)(추가)
 1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5)(추가)
 14. 농어업회의소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0)(추가)
 15.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8)(추가)
-

상정된 안건

1. 업무현황보고 4
 -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나. 농협경제지주
 - 다. 농협금융지주
 - 라. 한국마사회
 - 마. 축산물품질평가원
 - 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차. 축산환경관리원
 - 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타. 한식진흥원
 - 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하. 한국임업진흥원
 - 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더. 부산항만공사
 - 러. 인천항만공사

머. 여수광양항만공사	
벼. 울산항만공사	
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저. 국립해양박물관	
처. 국립해양과학관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119
2.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124
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7)	125
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9)	125
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9)	125
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2)	125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6)	125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8)	125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0)	125
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1)	125
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5)	126
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9)	126
1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5)	126
14. 농어업회의소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0)	126
15.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8)	126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어기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시작 전에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된 위원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우리 수석전문위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성심을 다해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

-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나. 농협경제지주
- 다. 농협금융지주
- 라. 한국마사회
- 마. 축산물품질평가원
- 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차. 축산환경관리원
- 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타. 한식진흥원
- 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하. 한국임업진흥원
- 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더. 부산항만공사
- 러. 인천항만공사
- 머. 여수광양항만공사
- 버. 울산항만공사
- 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저. 국립해양박물관
- 처. 국립해양과학관

(10시03분)

○위원장 어기구 의사일정 제1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24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준정부기관, 공기업 및 기타 공공기관들은 농어업, 해양수산, 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우리나라 말 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산 발전과 국가의 여가선용에 힘쓰고 있는 한국마사회, 항만 운영 및 관리를 통해 물류산업의 원활한 흐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

역별 항만공사를 비롯하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공공기관장 및 임직원들은 국민의 일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밀접히 관계되는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은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출석한 24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대표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각 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해당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미흡한 점과 제도적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조직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업무보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호동 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후 중앙회 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농협중앙회장 강호동입니다.

먼저 국민의 대표로서 제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12만 농협 임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평소 농업·농촌을 사랑하시고 뛰어난 식견과 역량을 갖추신 위원님들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모실 수 있게 되어 농협 회장으로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든든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농촌을 잘 이끌어 주시고 저희 농협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농협 현안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농협은 지난 60여 년 동안 농업인의 질곡의 삶 현장에서 보릿고개, 새마을운동과 동고동락하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농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지난 취임식에 즈음하여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희망농업, 행복농촌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는 회장 취임 100여 일 동안 재해현장과 농업 생산현장을 100여 곳 이상을 찾아 농업인과 일선 조합장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5일에는 1111명의 조합장님을 모시고 조합장 소통포럼을 개최하였고 6월 5일부터 7월 3일까지 지역본부 현장경영을 실시하여 농협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공통된 의견은 농업·농촌의 직면한 현실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첫째, 기후 현상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대책 부분입니다. 두 번째, 쌀값 하락과 소값 하락에 따른 대책 강구였습니다. 세 번째, 농촌일손 부족 해결 부분입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재해 지원 무이자 자금 2500억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20억 원 상당의 영양제와 30~50% 할인된 30억 원의 농약을 긴급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주 극한호우 피해지역에는 무이자 자금 2000억 원을 조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양수기 400대와 생필품을 신속히 공급하는 등 피해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도 6월 말 도래하는 벼 매입자금 5000억 원을 9월 말까지 유예조치하였습니다.

우리 농협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함께 논 타작물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농협은 쌀 소비 촉진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1000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적으로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전개하고 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TV 등 언론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쌀 가공 OEM 상품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한류 열풍을 토대로 쌀 수출 부분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은 해결할 수 없는 난제입니다. 정부와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년 농작업 수행을 위해서는 약 2400만 명의 일손이 필요합니다. 이 중 70%가 농번기에 집중되다 보니 농촌 인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농협은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14일 범농협 한마음 농촌일손돕기 운동을 통해 1만 3000여 명의 임직원이 일손돕기를 추진하는 등 연간 235만 명의 영농 인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농업의 어려운 부분은 농협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는 돈 버는 농업을 통해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돈이 안 되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소득 3000만 원 시대를 목표로 삼겠습니다. 수백억, 수십억이 드는 스마트팜 농업이 아닌 기 설치된 수많은 하우스 농가에 보급형 스마트팜을 지원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합니다. 또한 농기계 직영사업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하나하나 채워서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협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준섭 전무이사입니다.

다음은 여영현 상호금융대표이사입니다.

박서홍 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입니다.

안병우 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입니다.

이석준 금융지주 대표이사회장입니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입니다.

윤해진 농협생명 대표이사입니다.

서국동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농협 임직원 소개를 마치고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농협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원택 위원, 정 위원님, 업무보고를 받아요, 어떻게 해요? 서면으로 대체해요?

○정희용 위원 네 분 하신다고 그랬지요.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 네 분.

○이원택 위원 네 분 하자고 해 가지고, 전달이 안 됐나?

○정희용 위원 인사말씀만 네 분 하기로 했다면서요.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양해해 주면 서면으로 해 달라고……

○정희용 위원 그러면 4개 기관의 인사말씀만 하지요.

○위원장 어기구 그렇게 하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앙회의 보다 상세한 업무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마사회의 정기환 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후 마사회 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마사회 회장 정기환입니다.

제22대 농해수위 위원님들께 한국마사회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마사회는 공정한 경마 시행과 말산업 육성을 통해 축산 발전과 국민의 여가 선용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과 21년에는 정상적으로 경마를 시행하지 못함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축산발전기금을 출연하지 못하는 등 기관과 말산업 전반에 어려운 시간이 있었으나 다행히 현재는 전 임직원과 말산업 종사자들의 협력과 노력으로 어려움을 딛고 예전의 활력을 빼르게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경마 시행을 통하여 작년 기준 약 1조 30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 및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하였고 620억 원의 축산발전기금을 출연하여 농어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영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핵심 기능 위주로 기능을 재편하고 대부제 등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공기업 최고 수준인 2등급을 달성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말산업에 있어서는 신수요 창출을 위해 도심 승마체험을 지원하고 승마대회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를 제고하여 정기 승마 인구를 6만 7000명까지 확보하였습니다.

경마에 있어서는 경주 실황 해외 수출국을 23개국으로 확대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현지 매출을 기록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6월에는 국회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기반으로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온라인 발매 시범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금년 6월부터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온라인 발매 정식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마사회는 온라인 마권 발매제도가 설명 구매 기반의 건전한 레저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으며 앞으로도 당초의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천 경마공원과 화옹 말 조련단지 건설 등 말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혁신의 노력을 다하여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국마사회는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조언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완호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김종철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류원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과 주요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사회의 업무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임업진흥원 최무열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후 진흥원 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임업진흥원장 최무열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러분!

평소 우리 임업의 발전과 임업인의 소득 증진 및 권익 보호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업인 출신으로 기관장에 임명받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인들의 산림소득 증대 및 임업의 산업화를 위해 설립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최근 임업 선진국에서는 임업을 기후변화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산업으로 정의하고 전통적 임업에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우리 임업의 산업화를 선도하여 임업인의 소득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 영역에서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돈이 되는 경제임업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특별관리 임산물을 중심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 및 신상품 개발, 판로 확대, 청정임산물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통해 임산물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체된 목재산업계의 성장을 위해 목재 이용이 곧 탄소중립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규제 해소 및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도 유망 목재기업인 KWood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산업 성장에 저해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산업계와 함께 개선하는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경주하고 있습니다.

셋째, 산림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지원을 위해 AI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하여 산림공간정보 등 산림 빅데이터 생산을 확대하고 융복합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탄소 공급과 수요 매칭을 위해 대규모의 산림탄소 상쇄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 병해충의 확산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운영과 맞춤형 예찰·방제 지원으로 산림이라는 탄소흡수원을 병해충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무 중심의 신규 R&D 사업 과제를 확대하고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구과제의 기획과 집행, 성과 관리까지 단계별 체계를 고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인의 소득 증진과 임산업계의 발전 및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고견과 충고를 귀담아듣고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관 업무현황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돈하 산림이사님.

고락삼 산림자원이사님.

이승우 기획혁신본부장님.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사를 대표해서 부산항만공사 강준석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후 공사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입니다.

부산항은 지난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물동량인 2315만TEU를 처리함으로써,

그리고 올해 4월에는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터미널을 개장함으로써 한국형 스마트항만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업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진해신항 등 부두시설 적기 확충과 북항 컨테이너부두 기능 재배치를 통한 운영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산항 2050 탄소중립 종합계획 고도화와 항만 하역장비 국산화 등을 통한 친환경·스마트 항만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항 1, 2단계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부산항을 해양관광·문화·비즈니스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물류 플랫폼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부산항 중대재해 제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만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1월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2040 신비전을 선포하고 글로벌 종합 항만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의견과 경륜으로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고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부산항의 비전과 발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규호 경영본부장입니다.

홍성준 운영본부장입니다.

이상권 건설본부장입니다.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부산항만공사의 강준석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업무보고를 실시한 농협중앙회 등 4개 기관 외에 20개 기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출석한 기관장만 인사를 하고 업무보고와 소속 간부 소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한 기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협경제지주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님 출석하셨습니다.

농협경제지주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님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협금융그룹 이석준 회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노수현 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종순 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해동 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위성환 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김영재 이사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관리원의 문홍길 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식진흥원 임경숙 이사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안호근 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남태현 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이석우 기획이사님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박성현 사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항만공사의 김재균 사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김민종 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최완현 관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출석한 기관들이 너무 많네요.

다음은 국립해양박물관의 김종해 관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국립해양과학관의 김외철 관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인사)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은 업무보고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첫 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7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실시하기로 양 간사님과 협의하였습니다.

먼저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반갑습니다.

평택항·당진항을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 만들고 평택항에 국립해양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출마해 당선된 평택을의 이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사회 회장님한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 상임 임원 정원이 몇 분이십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7명입니다.

○**이병진 위원** 그중에 여성 임원은 몇 분이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병진 위원** 2022년 이후에 여성 임원이 몇 명입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여성 임원은 없고요, 간부들 비중은 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없어요. 상임 임원 7명 그리고 일반직 1급이 17명, 2급이 83명, 총 107명 중에서 일반직 2급 여성은 단 1명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성 중심의 기관 문화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모두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급까지 범위를 넓혀서 전체 323명으로 계산하면 여성은 한 32명 됩니다. 한 10%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어요.

PPT 영상을 보시면……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2022년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도 확대하고 더 늘리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지적받은 이후에 어떤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 있나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병진 위원 노력만 하면 안 되고 말이지요, 일반직 여성 비율이 한 23% 그리고 경마지원직은 한 74%,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노력을 한다고 매번 말하지만서도 나아지는 모습이 전혀 없다, 특히 여성 임원은 0명이다, 제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기반해서 다음은 또 성인지 감수성이 낫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어요.

우마무스메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지요, 우마무스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우마무스메는 일본에서 개발된 게임입니다.

○이병진 위원 예, 일본 경주마를 캐릭터화한 게임이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좀 친근하게 경주마를 소개하고자 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의 유명 경주마를 게임 캐릭터처럼 의인화를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이병진 위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참 제가 믿기가 어려운데 경마장 전광판에 송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질의를 했지만서도 특히 여성의 성상품화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인지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아주 낮부끄러운데 말이지요.

이 영상을 단순히 저작권 때문에 내렸습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모든 면에서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병진 위원 저작권만 있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이병진 위원 저작권 문제만 있는 게 아니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기본적으로는 이게 일본과 우리 국내 운영사인 카카오게임즈에서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짧은 춤들 관심 제고 차원에서 시작했다가 바로 삭제했습니다.

○이병진 위원 아니, 지금 일제의 잔재를 계속 이어 갈 겁니까? 우리 K-컬처가…… 서구에는 미국, 동양에는 중국이 아니고 한국이에요, 이제는. 웹툰 같은 경우에는 별씨 나

스닥에 상장됐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수컷 말들을 모두 어린 미소녀로 의인화, 캐릭터화 시켜 가지고 짧은 치마, 스타킹, 구두를 신게 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가슴이 노출된 의상, 수영복 차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광고한다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공공기관 유튜브에서 이런 것이 공공연하게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위원님 지적 굉장히……

○이병진 위원 기획 단계에서부터 심사숙고하고 제삼, 제사 고려해야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21세기 대명천지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돼요, 안 돼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삭제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언급하잖아요. 성인지 감수성이 낮아요. 그리고 남성 중심의 기관 문화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대책 강구해서, 이런 일이 우리 마사회에서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알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다음에 농협 강호동 회장님, 방탄유리천장 농협,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나라 농가 인구의 50%도 여성이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이병진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이병진 위원 농협중앙회 보면 경제지주, 금융지주 포함해서 약 2만 8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실장이나 부장, 지역본부장—M급이라고 합니다—129명 중에서 여성은 몇 명입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지금 한 89명 정도……

○이병진 위원 아니, 129명 중에 여성은 5명이에요, 5명. 무슨 89명이에요.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세요. 몇 %입니까? 4%예요, 4%.

그리고 경제지주 M급 관리자 93명 중에 여성은 단 1명이에요, 1명. 그리고 금융지주 M급 관리자 18명 중에 여성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웃자고 얘기하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지요. 없습니다.

또 농협은행도 여성 직원하고 남성 직원이 거의 비슷한데 말이지요 여기 보면 M급 관리자 611명 중에서 여성은 67명, 1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중앙회 계열사 14곳, 특히 M급 관리자 14명 중에서 여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1분만 더 주세요.

그리고 경제지주 계열사 14곳 중에서 M급 관리자 70명 중에 여성은 세 분 그다음에 금융지주 계열사 8곳 중에서 M급 관리자 92명 중에서 여성은 열네 분입니다.

왜 여성 간부가 이렇게 적어요? 회장님, 여성 간부가 왜 적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아마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병진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농협에 가면 다 여성이에요. 그런데 상위로 올라갈수록 여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 비율에 맞춰서 올라가도 이런 현상이 난다, 안 난다? 날 수가 없지요, 산술적으로 봐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앞으로 여성 직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여성 임원도, M급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진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당장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검토가 아니고 고민해서 실행에 옮기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경북 영천·청도 지역구 이만희 위원입니다.

먼저 강호동 회장님, 25대 농협중앙회장에 취임하신 것 또 선출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중앙회 기구 내에 회장님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홍보라든지 어떻게 보면 CEO로서의 경력 같은 것을 좀 홍보하고 관리하는 조직이 있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특별히 제 개인적인 홍보라기보다 홍보실이라든지 또 비서실 등등 해서 저에 관련해서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혹시 회장님은 본인 스스로를 농업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농협 은행이 있으니까 금융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저는 제가 중앙회장 되기 전에 지난 약 20여 년 동안 조합장직을 수행했고 그 앞에는 약 20년 정도 직원 생활을 했고 그 이전에는 또 농업에 부분적으로 제가 아버지와 같이 했기 때문에……

○**이만희 위원** 답변을 조금 줄여 주십시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농업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제가 강호동 회장에 대한 프로필이나 이런 것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네이버 인물란이라든지 또 나무위키의 인물란 같은 데에 강호동 회장을 확인해 보면 금융인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속하게 확인하셔서 바로 잡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네이버에 저희들이 등록을 할 시점에 제 직업이 금융인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만희 위원** 고치도록 하십시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예, 고치도록 하십시오. 지금 어떻게 보면 농협중앙회장은 어떤 면에서 는 농업의 대통령이라고까지 호칭을 받는데 금융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교정하도록 하시고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 문제와 좀 연관돼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농협중앙회 구조 자체가 손익구조를 이렇게 보면 농협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한 여러 이익 같은 것들을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필요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농업 발전을 위해서 그 이익금을 다시 투자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거기에 우리가 보통 농업지원사업비 이렇게 표현하는데 명칭사용료, 농협법에 따라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주로 하는데 명칭사용료라는 말은 저는 조금 부적절하다 생각도 듭니다. 농업지원사업비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3페이지 정도 올려 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입니다.

농업지원사업비의 연도별 현황들을 좀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는 매출액이 아니라 당기순이익하고도 많이 비교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금융지주에서 한 4927억 정도를 농업지원사업비로 내놨는데 이 사업비의 과다를 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저는 각 계열사에서 농업지원사업비는 당연히 부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지금 법에 따라서 2.5%…… 매출액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농업 분야의 목소리가 높고 또 반면에 금융 계통에 있는 분들은 그거 뭐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다 이렇게 해서 줄여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상충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데 농협금융지주라는 이런 회사들은 농협중앙회가 100% 출자한 자회사고 농협금융지주를 포함한 농협금융 계열의 모든 회사들…… 모든 곳은 또 농협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농민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공유해야 된다 하는 그 인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장님도 그렇게 발언하셨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동의합니다.

○이만희 위원 회장님 생각에는 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한 2.5%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앙회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또 더 증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또 증가 요인을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해서 이익을 많이 발생시킨 금융지주 산하의 금융 계열 쪽에도, 회사에도 정말 좋은 칭찬의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그 이면에는 개개인의 노력들보다는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발생되는 여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지난, 작년이라든지 올해 계속되고 있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금리의 영향도 많이 있었다고 보고 또 비이자 수익, 그러니까 일종의 수수료 같은 것들을 책정하는 것을 높게 잡아서 그런 것도 있고 스스로 비용 절감을 통한 그런 부분도 좀 있겠지요. 그렇지만……

다음, 두 번째 장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PPT 두 번째 장을 보시면, 23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전체 금융지주 계열사의 일반 성과급이 아니라 특별 성과급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 주는 성과급을 작년 2023년도에 얼마를 줬느냐 하면 전체 한 4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지주 계열사들이 농업 발전을 위해서 내놓은 돈이 한 4900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자기들 장사 잘해서 이번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가 특별 상여금으로 직원들한테 노나 가진 돈도, 배포한 돈도 한 4100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준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농업인을 위한, 농협을 위한, 농민을 위한 그런 농협중앙회라면 이 농업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비가 결코 많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인식, 스탠스를 확실하게 잡으셔야 되는 게 필요하고.

농협 계열의 금융지주 회사 산하의 여러 회사들은 그냥 단순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개인의 어떤 시중은행하고는 또 다릅니다.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사항들을 좀 많이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의 농업 현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가장 큰…… 여러 가지 간담회도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회장님이 파악하셨을 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여러 가지 현장…… 우리 농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여건이 정말 특별하게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혹시 상호금융, 그러니까 단위농협의 연체율이 2024년도 4월 기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한 3.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4월 기준으로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일점몇 %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만희 위원** 0.48%예요. 그것을 따져 보면 단위농협의 연체율이 9배가량 높습니다. 그만큼, 농촌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은 농민들의 삶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 얘기들은 제가 다음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이만희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아마 내용이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중앙회장님!

아까 일반 금융회사의 2023년도…… 아니지요, 24년도 3월인가요? 연체율 기준……

○이만희 위원 4월 기준.

○임미애 위원 4월의 연체율 기준이 0.48%, 우리 지역 농·축협의 연체율이 3.8%가량,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지역 농·축협 대출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이 모니터 보시면 됩니다.

지역조합의 대출 연체율 현황인데요. 연체율 관리목표라는 게 있고 조합은 그동안 이 목표치 안에서 대출금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23년 말부터 이 목표치를 넘어서는 연체가 발생합니다. 대출 규모가 345조 3600억 원에서 불과 5개월 만에…… 이게 위에 잘못됐는데 2024년 5월 말 기준입니다. 24년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5개월 만에 무려 347조 6400억 원으로 대출 규모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연체액만 3조 9553억 원이 늘었습니다, 5개월 사이에.

이게 24년 5월 말 기준이니까 올 연말까지 가면 이 연체액이 과연 줄겠는가 보면, 제가 농촌에서 32년을 살았는데요. 어렵습니다. 줄지 않습니다. 더 늘어납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 연체율이 높은 것이 특정한 지역조합 몇 군데의 현상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 연체율이 3% 이상인 지역조합 현황인데요. 지역조합 전체 수가 1111개입니다. 그중에 24년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조합 수 586개, 다시 말하면 52.7%가 대출 연체율이 3%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역 농·축협이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 연체액 중에서 농가가 낸 대출이 아니라 지역농협이 공동대출한 대출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동대출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해서 2개 이상의 조합이 공동으로 대출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역 농·축협은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을 해 줄 수 없지만 본격적인 부동산 PF가 시작되기 전에 토지 매입이나 초기 개발 비용을 충당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브릿지론입니다. 지역 농·축협이 브릿지론을 통해서 공동대출을 해 준 겁니다.

농·축협의 공동대출 연체율 현황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22년부터요 이 공동대출 액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23년 말에…… 그러니까

22년 말 이때는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경기가 막차를 탔다고 하는 그 시점입니다. 이때 농·축협은 대출을 해 줍니다, 다들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경고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시점에 지역의 농·축협은 이때 부동산에 대한 공동대출을 시행합니다.

23년 말 공동대출금이 22조 5000억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24년 5월 말 23조 3200억이 넘습니다. 연체율이 11.33%입니다. 불과 5개월 사이에 연체액이 58% 늘어납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시겠습니까?

제가 개별 농협의 공동대출 연체율 현황을 받아 봤는데 특정한 지역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농·축협 조합원들의 뱅크런 사태가 벌어질까봐 특정한 농·축협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지역별로 한번 보면은요 서울 부산 대구 죽 보면, 잘 안 보이시나요? 지금 대구가 19.82%로 전국 최고로 높습니다. 전국 평균이 11.33% 연체율인데요 대구가 19.82%, 경북이 16.43%입니다. 전국 16개, 세종시를 빼고 16개의 광역 시도 중에서 평균을 넘어서는 농협이 무려 7개나 됩니다. 농협이 이렇게 투기에 멀게 되니까……

다음 자료 보여 주시겠습니까?

농협 직원까지 나서서 사기를 칩니다. 브릿지론 대출을 해 줍니다, 농협 직원이라는 것을 팔아서. 이 사건 불과 한 달 전의 일입니다. 24년 6월 7일 날 발생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가담해서 브릿지론 대출에 사기를 친 금액이 200억 원이 넘습니다.

당시 농협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IT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휴직 기간에 별인 일이어서 범행과 회사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직원이 사기를 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담보물권을 부풀려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실질 평가액보다 과하게 대출합니다. 전형적으로 지역의 농·축협이 부동산 브릿지론을 대출해 줬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시겠습니까?

아, 저는 농·축협이 브릿지론의 공동대출을 하자는 결정을 어느 단위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개인의 퇴직금을 운용하는 투자사들도 개인의 투자 성향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사후 리스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오고 간 다음에 투자상품을 결정합니다.

저는 농·축협의 이런 행위를 207만 조합원에 대한 명백한 배임행위라고 규정합니다. 내 돈이 아니라고 혼자 하면 겁이 나니까 두셋이 손잡고 투기에 가담합니다. 그리고 서로 안심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작년 말 지역 농·축협이 이삼백 %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까 이만희 위원 지적하셨지요. 23년 한 해 농협은행에서 성과급 잔치 벌인 금액이 총 2300억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조합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융 전문가들은요 부동산 PF 부실이 이제 본격화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고금리 기간이 길어지면 30조 원 규모의 브릿지론의 절반가량이 최종 손실 처리될 거라고 합니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어기구 예.

○**임미애 위원** 기준금리 조기 인하와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전제로 해서 브릿지론의 만기가 연장되어 왔는데 지금 토지비용 낮추지 않으면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브릿지론에 쓰여진 돈은, 여기에 담보 잡힌 물건들은 모두 다 경매·공매 압력이 커질 겁니다.

5월에서야 중앙회에서는 사전검토제도 도입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내부통제 시스템 갖춰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의 농협에서 책임지지 않는 조합원들의 돈을 가지고 이런 투기행위를 일삼을 것인지 저는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합장님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위원님 지적 참 여러 가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회장 취임 이후에 제가 제일 첫 번째 강조했던 것이 상호금융 연체를 낮추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대출의 심각성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인수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IMF 이후에 가장 지역농협이 어려운 시점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상호금융부, 조감처, 회원지원부 합동으로 지역농협 연체 감축에 따른 추진단을 구성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협에 자산관리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획기적으로 지역농협 연체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서 지금 지역농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체 감축 방안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대출 연체 비율이 약 한 11.8% 정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공동대출 한 7%대, 연체 채권 전체 부분은 3.8% 부분을 약 한 1%에서 2%대로 내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내부통제 시스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좀…… 상호금융 부분에 제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공동대출을 할 때 중앙회…… 상호금융에서 여러 가지 점검사항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호금융 대출이 나가면 적극적으로 부실 우려를 사전 대출 시행부터 검토를 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이후에 추가질문 시간에 조합장님 답변에 관한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알겠습니다.

(「중앙회장」 하는 위원 있음)

○**임미애 위원** 아, 중앙회장님.

지역에 있다 보니까 조합장님이 입에 배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괜찮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임미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의 존함을, 이름을 말할 때는 ‘존경하는 A 위원님’ 이렇게 해서

우리 농해수위 위원님들끼리는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충북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우선 강호동 중앙회장님, 저희 재난지역에 또 수해를 입은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여영현 대표이사님 또 이석용 은행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부 명단을 보니까, 제가 작년 국감 때도 지역적인 안배 인사를 좀 부탁드렸었거든요. 간부 명단 보니까 충남북은 한 분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됐든 아까 이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인사 문제 이것을 좀 안배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우리 충북 지역이 많은 홀대를 받았던 것 같아서 제가 이번 국감에도 한번 인사 현황을 보고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지역 안배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아까 이병진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 위원들도 이렇게 안배를 좀 하시는 중앙회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농협중앙회가 농어민 기업 보증 개신할 경우에 한도를 일괄적으로 10% 줄인다고 하셨잖아요. 결정했지요? 아직 결정 안 됐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아직 안 했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결정할 경우에 한도 감액 비율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고 또 언제부터 적용할 생각을 갖고 운용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여러 가지 농신보 부분은 우리 농어민들한테 꼭 필요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도를 감액하는 부분은 재고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농신보 한도 예산 부분을 기재부에 좀 확보를 해서 농어민들이 대출하는 데 한도 축소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렇지요? 보증을 받아서 사업자금을 마련했던 기업들은 아마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화면 잠깐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상시 종사자 규모 비율을 보면 보통 2~4인 기준이 40.4% 또 1인 이하가 32.5%나 됩니다. 또 법인 자산 및 부채 현황이 18억 9200만 원, 부채가 12억 3400만 원 정도 되는데 결국은 영세한 법인이 70%가 넘거든요. 지금 PPT 도표와 같이 이렇게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10%를 만약에 감액한다면 1억 2000만 원을 상환해야 되는 실정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영세업체들한테는 상당한 영향을 끼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출연금 재정 당국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겠지만 적정 운용배수를 유지하는 데 중앙회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농어업법인들이 많다는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보증 한도 축소안이 현장에 좀 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 정부출연금 확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농림부와 또 재정 당국에 긴밀한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마사회 회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여전히 마사회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 나는 회장님이 바뀌었나 했더니 그대로 또 계시네.

작년에 제가 국감에서도 질의를 했었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지난 2012년 직원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으면서 명퇴자를 대상으로 경마지원직 특별채용을 약속한 게 있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 하세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당시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명퇴한 직원을 다시 특별채용 특혜를 준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당시에 2010년부터 16년까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고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지금 시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박덕흠 위원** 그때는 그러면 말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그래서 2017년부터 여러 지적이 있어서 그 제도 자체를 폐지한 것으로…… 폐지했습니다.

○**박덕흠 위원** PPT 좀 띄워 주십시오.

화면을 보면, 감사원 감사보고서 결과거든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직원인데 해당 직원이 2012년 1월 명퇴했다가 세 달 후에 다시 마사회 경마지원직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재취업을 했지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회장님?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박덕흠 위원** 다음 PPT.

이 마사회 직원이 또 내부 정보를 빼 가지고 고객에게 빼돌렸어요. 그래 가지고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법정 구속이 됐고 이후 마사회는 해당 직원을 면직 했거든요.

다음 PPT.

그런데 이 직원은 형 집행이 완료되고 2017년 마사회에 2차 재취업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재직 중이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누군지는 알고 계세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아서 징역형을 받은 직원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채용이 됐는데 이게 회장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문제의식 느끼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잘못됐으면 잘못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불구하고 채용한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이게 부패방지법에 대해서 바뀌었잖아요, 2016년도에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도록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취업을 합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당시에 실무자와 담당 간부가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면 잘못됐으면 다시 고쳐 놔야 되는 것 아니예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그래서 복수의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들을 쭉 구하고 그런 방법들을 찾으려고 여러 방법들을 강구하고 논의를 했는데 법률 자문 결과 이 당사자가 2020년에 또 근로계약을 갱신했고 그래서 그러저러한 이유로 해고하기가 법률적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덕흠 위원** 그건 직원들이 다 짜고 치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 보면?

○**위원장 어기구** 마무리해 주시고요.

○**박덕흠 위원** 하여간 잘 정리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자세한 것은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모처럼 이렇게 한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중앙회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먼저 좀 가벼운 것부터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날 시청역 교통사고 보셨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임호선 위원** 시청역에…… 급발진이냐 아니냐 해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임호선 위원 열여섯 분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변이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데 모 농협에서 이런 문자를 발송한 거예요. ‘시청역 교통사고 뉴스 보셨죠? 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 가입은 필수인데 이런 사고 발생 후에 농협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참변으로 모든 국민들이 시름에 빠져 있는데 농협에서 이렇게 보험 가입을 추천하는 문자를 보낸 건 조금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권감수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회장님, 이것 어디 농협 누구인지 밝혀 가지고 처벌해 달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 하지 마시고요. 직원들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임호선 위원 업무보고에서 쌀값 하락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런 말씀 강조해 주셨는데 저는 농민신문 보면서 강 회장님 정말 부지런하시다, 또 열심히 현장 의견을 경청하시는 모습 보도를 통해서 참 흐뭇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쌀값 하락 부분에 대한 대책과 관련돼서 너무 조금 정부…… 지난주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하고, 쌀값 문제에 대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정협의회에서 말씀하신 게 정부는 5만t 공공비축으로 매입하고 농협이 10만t을 판촉이라든지 소비 촉진을 해서 시장격리 효과를 15만t를 내겠다, 이런 취지로 사실은 정부 대책이 마련됐지 않습니까? 사실 10만t을 농협에다 떠넘긴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소비 촉진이라는 게 쌀 시장격리가 아니라 시장 방출이지 않습니까? 소비를 늘리면서 어떻게 가격 하락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하락을 부추길 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t에 대한 대책이 존경하는 강 회장님 인사말씀 중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 겁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저희들도 지금 쌀값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장관님께서 10만t을 농협이 책임지겠다라는 그 취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임호선 위원 잘 모르신다고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농협에서는……

○임호선 위원 협의가 안 되셨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하여튼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쌀 재배면적 감축과 격리를 통해서 현재 부분을 해결하고요, 우리 농협은 쌀 소비 촉진을 통해서 전사적으로 역할을 하겠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그 10만t 부분을 정부하고 농협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거예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10만t에 이렇게 두고 한 것은 없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건 정말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다 보도자료까지 내서 대대적으로 1면

톱기사에 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을…… 우리 농민들이 쌀값 안정을 위해서 15만t 시장격리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중에 정부는 5만t만 매입하겠다고 하고 10만t은 농협에다 떠넘기면서 농협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저는 하여튼 쌀 소비 촉진에……

○**임호선 위원** 아니, 소비 촉진이라고 하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농협의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한 1000억 정도 들여서……

○**임호선 위원** 지금 재고량이 66만t 아닙니까, RPC애? 그런데 10만t을 시장격리 효과를 내려면 사실은 10만t을 더 사들여야 되는 문제잖아요. 재고를 늘려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야지 시장 격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가격을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대책이 없이 지금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부도 정부지만 이건 정말 농협에 떠넘긴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강 회장님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하여튼 저희들은 여러 가지 쌀 소비 촉진에 관련해서, 쌀값 안정화에 관련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면 그 10만t을 어떻게 할 것인지 뒤에 계신 간부님들 중에 정부하고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 방으로 자료 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사회 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6월부터 온라인 발매가 시행이 됐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임호선 위원** 이게 1단계로 시범운영 하다가 6월 달부터 정식 운영이 됐는데 그때 온라인 발매를 도입할 당시에 가장 컸던 우려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청소년 접근 문제랄지……

○**임호선 위원** 불법도박입니다.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또 불법도박이랄지 그런 문제들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불법경마 적발 현황을 살펴보았거든요. 적발된 금액만 4000만 원이고요 여섯 차례 적발됐어요. 6월이면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6월 16일부터 이게 정상 운영된 부분이니까. 금·토·일 경마 진행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매주 적발된 겁니다.

그런데 적발 금액이 4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경마 현장 적발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경찰 협조해 가지고 합동단속을 나가서 거기 불법사이트에 배팅된 금액만을 단속금액으로 산정하니까 사실상은 암수범죄까지 감안한다면 엄청난 불법도박이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마사회 정식 운영 경마는 구매 상한이 얼마지요, 경주당?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온라인에서는 회당 5만 원이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경마장에 직접 입장해서 하신 경우는 1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100원부터.

○**임호선 위원** 불법도박 사이트에서는 얼마까지 배팅이 가능한지 혹시……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임호선 위원** 50만 원까지 배팅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사이트마다 다른데 거의 제한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면 이게 온라인 특성상 불법도박이 더 성행될 우려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지금까지 그런 우려들이 있어 왔고, 그런데 시범사업 기관과 또 본사업을 준비하는 기관에서 정부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많은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한 장치와 또 준비들을 해서 지난 6월 21일부터 본사업을 시행했는데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우려사항들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제가 제안드리자면 이게 집중신고기간 같은 것을 운영하는데 신고포상금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래서 불법도박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강화된 대안을 보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 정읍·고창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먼저 강호동 중앙회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취임 100일이 되신 거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또 국제협동조합농기구 회장 취임 축하드립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감사합니다.

○**윤준병 위원** 최근에 집중호우 발생했는데 중앙회에서 긴급재해대책위원회 개최하고 또 지역 현장을 방문해서 피해조사 이런 활동들을 하신 것 저희들이 신선하게 느꼈어요. 좀 새롭게 이렇게 적극적인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파악된 피해는 얼마 정도로 추계가 됐나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처럼 아마 지역별로 계릴라성, 극한폭우로 인해서, 그런데 구체적인 자료를……

○**윤준병 위원** 아직은 안 나왔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지금 있기는 있는데 제가 다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것은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윤준병 위원** 또 내부적으로 20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재해대책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실제 신속하게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또 취임 목표로 농업소득 3000만 원 달성을하겠다, 그러면 지금 1000만 원 대니까 세 배를 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농식품부에서 쌀값 안정화 정책으로 15만t 격리하겠다고 했는데 소위 10만t을 인수받는 농협하고 협의도 안 됐다는 점 또 사실은 5만t 격리하겠다는 내용이 농협 분량이 4만 4000t인데 농협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행정의 난맥상을 발견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혹시 박서홍 대표님,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중앙회장님은 협의를 구체적으로 한 것 같지 않고 대표님은 경제지주대표로서 협의한 바는 있나요?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예, 저희들은 농식품부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윤준병 위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의 협의가 있었습니까?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당초에는 정부에서 시장격리 얘기를 저희들이 견의를 드려서……

○**윤준병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언제 협의했냐고요, 일반적인 얘기 돌리지 말고.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윤준병 위원** 어떤 내용 협의했어요?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쌀 과잉 물량에 대해서 농협 자체적으로 소비 촉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윤준병 위원** 소비 촉진, 10만t 처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소비 촉진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격리하겠다는데 소비 촉진이 대안이면 안 되지요.

격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쌀 재고량이 66만t이 있잖아요. 66만t이 있는데 농협이 55만t 가지고 있고 농협 외 재고가 11만t, 한 12만t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격리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 물량이 아닌 시장 물량을 격리해야 이게 마땅한 방법인데 그것도 안 하고 농협이 가지고 있는 10만t 알아서 격리하라고 그러고 또 정부에서 5만t 격리한다는 것도 농협 재고량 4만 4000t이 똑같고 그러면 이 내용은 농협이 가지고 있는 재고량에, 나쁘게 얘기하면 재고 털기라든가 장부 정리에 불과하지 실질적인 시장격리에 따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동의하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면 시장격리 가지고 있는 것 장부만 가지고 격리한다고 시늉만 내고 있지 실질적으로 격리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쌀값 안정화에 기여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농식품부의 지금 나온 시장격리의 진면목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국정감사 할 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쌀값이 작년 10월 대비해서 한 14% 이상 떨어져서, 지금 한 15% 되던데 이렇게 되면 농협에서 재고량으로 가지고 있는 재고 쌀값, 전체적인 자산, 얼마나 손실이 발생하나요?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저희들 6월 말 가결산 기준으로 약 700억에서 1000억 정도 지금 지역농협 손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제가 지금 12월 손익 보니까 한 1084억……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예, 최대……

○**윤준병 위원** 이 정도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계가 돼요. 그런데 농식품부는 이 손실은 농협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던데 동의하나요?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

○**윤준병 위원** 말하기가 어렵지요?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손실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이게 지금 농식품부 농정의 진면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들어가세요.

중앙회장님, 지금 농협에서 전국 하나로마트가 2274개인데 할인행사를 계속하잖아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윤준병 위원** 소비가격을 낮추지 않고 할인행사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제가 볼 때는 할인행사는 특별한 이유보다는 지역 농산물이 과잉 생산됐을 때 역할도 하고 또 하나로마트의 여러 가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할인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저는 이 내용이 유통 혁신 차원에서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8일 민생 점검 차원에서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했을 때 동행했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때 ‘할인 가격 875원, 대파 합리적 가격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존경하는 위원님, 그때는 제가 있을 때 우리가 대파 875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4200원이 시세인데 정부보조금 2000원과 카드 할인 행사 1000원 그리고 농협의 할인행사 금액을 포함해서 875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직원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해 가지고 할인가격 875원으로 판매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게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발언하고 언론의 질타와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은 바 있는데, 이게 시장을 왜곡시키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정상적인 가격으로 해서 소비를 촉진시키려면 소비가격을 낮춰야지요.

이런 농산물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한우도 대표적으로 그래요. 한우 가격을

낮추려면 제대로 낮춰야 소비가 촉진돼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그게 바로 미터가 돼야 전체적인 소비가격이 하향 조정될 것 아닙니까? 농협이 기득권의 유통구조에 안주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같이 반복을 해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 개혁할 의지가 있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이 내용을 검토하셔서 개혁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농식품부에서 식량정책과라든지 누가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에? 농식품부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장 김동현** 농업금융정책과장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장 김동현** 농업금융정책과장 김동현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좀 나오셔 가지고요 지금 쌀 시장격리 관련해서 농협의 입장을 들으셨을 텐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한번 대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장 김동현** 저는 농업금융정책과라서, 식량정책국에서 담당이라서……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밖에 누가 있어요? 농식품부 식량 관련한 과 누구 나와 있나요?

○**윤준병 위원** 원래 국장이 나와야 되는데……

○**정희용 위원** 수해현장에 가 가지고 양해를 구했어요.

○**이원택 위원**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요, 원래 국장님 오시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으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밖에도 없나요? 정부 입장을 좀 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 부산항만공사 사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해수부 해운물류국장 나와 계시지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이시원** 예,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같이 들어 주세요.

사장님, 부산항만공사 관리하는 항구가 어떤어떤 곳이 있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북항, 신항, 감천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렇지요. 감천항이 보면 연간 한 1만여 척의 배가 입출항하고 있지요, 내항선, 외항선 해 가지고? 맞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조경태 위원** 그러니까 1만 척이 되는 배들이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물동량이

많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특히 냉동어획물이 많이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 현장 가 봤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몇 번 가 봤습니다.

○**조경태 위원** 가 보신 경험 말씀을 주시면 어떻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신항이나 북항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환경이 열악하고 또 안전의 위험도……

○**조경태 위원** 그것 알고 있으면서 왜 안 고쳐요?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그동안 주요 투자사업을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것 보시면 이게 7조 8677억 원을 총사업비로 그동안 쪽 투자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북항, 신항에 거의 98.76%가 투자됐습니다. 맞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조경태 위원** 그런데 감천항에는 고작 1.24%밖에 투자 안 됐어요.

감천항 주변에 가 보면 인근에 주택이 많은 것 알고 계십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여기에 보면 물동에 보면 시멘트하고 철강 이런 것도 막 쟁여 놨지요, 목재도 쟁여 놓고. 맞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봤습니다.

○**조경태 위원** 환경적인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측이 안 됩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충분히, 이동을 하면서 분진이나 소음,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위원** 저는 항만공사가 왜 설립이 됐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계속 이어서 나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감천동 일대의 시민들 한 303명을 상대로 석면 건강영향평가조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경태 위원** 심각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석면의 정밀검진 대상자로 61명이나, 무려 20% 가까운 분들이 정밀검진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이 보도를 보고 난 이후에 항만공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이러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경태 위원** 지금 그 주변에 선박 수리업체가 있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있습니다.

- 조경태 위원** 오래된 선박에서는 석면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요?
-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 조경태 위원** 맞습니까?
-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경태 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냉동창고가 밀집돼 있지요?
-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 조경태 위원** 소음, 분진 그리고 악취 이게 우려되지요? 안 됩니까?
-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우려됩니다.
- 조경태 위원** 사장님, 해수부차관까지 하셨지요?
-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 조경태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 전문가 아닙니까?
-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 조경태 위원** 어느 선진국가에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하는 이런 해운·항만 운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저희들이 아무래도……
- 조경태 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일본이 그렇습니까? 네덜란드가 그렇습니까? 미국이 그렇습니까? 영국이 그렇습니까?
-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했다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까 PPT 보셨잖아요. 무려 7조 80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98% 이상을 주민이 살지 않는 그런 지역에는 투자를 하고 주민이 사는 지역에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명백히 항만공사도 그렇고 해수부도 그렇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또 계속 보시겠습니다.
- 그동안에 최근 5년간 부산항 사고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에 보면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부산항 사고 발생 현황 보십시오.
- 여기 보면요, 최근 149건의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이 중에 감천항에서 난 사고가 50% 가 넘었어요.
- 다음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신문에 나온 내용 보시겠습니다.
- 보세요. 2024년 올해입니다. 올해만 들어도 이렇게 감천항에서 연일 이런 사고가 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감천항에 대한 투자라든지 감천항에 대해서 전혀, 그냥 내놓은 자식처럼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 이것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경태 위원** 앞으로 이것 투자계획을 다시 짜야겠습니까, 안 짜야 되겠습니까?
-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경태 위원** 검토가 아니고 짜야 되겠습니까, 안 짜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 조경태 위원** 짜야 되겠습니까, 안 짜야 되겠습니까?
-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짜야 되겠습니다.
- 조경태 위원** 당연하지요.

해운물류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이시원** 예.

○**조경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 말씀만 해 보세요. 나오셔 가지고 해 보세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이시원** 해운물류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명심해서 BPA와 함께 필요한 것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해수부하고 항만공사하고 부산시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더 이상은 감천항 주변의 인접 지역 주민들이 건강과 안전이 위협되면 안 되겠지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이시원** 예,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이시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위원**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감천항에?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이시원** 최근에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조경태 위원** 가 보시면 엉망진창입니다. 동남아시아 수준도 안 돼요. 이해됩니까?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이시원** 예.

○**조경태 위원** 그래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서.....

해양투기, 해양오염을 시키면 안 되겠지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이시원** 예.

○**조경태 위원** 맞습니까?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이시원** 예.

○**조경태 위원** 짹 다 수질조사 다시 해야 되겠지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이시원** 예.

○**조경태 위원** 분진조사, 수질조사 또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까지 다 체크해야 됩니다.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이시원** 예.

○**조경태 위원** 그래서 이것을 빨리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정말 선진국형의 항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이시원** 예, BPA랑 잘 상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종합계획을.....

1분만 쓰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계획을 항만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음 상임위 때까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단기계획·중기계획·장기계획까지, 단기와 중장기계획을 짜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이시원** 예, 논의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항만공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것을 제가 지켜보고 이것 개선할 때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 항만공사가 정말 이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 부분을 접근해서 꼭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알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종덕 위원입니다.

중앙회장님, 21대 국회에서 농협법이, 협동조합법이 농업개혁의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셀프 연임 논란으로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혹시 본인의 연임을 위한 농협법 개정 추진할 의향 있으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저는 지금도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연임하실 생각보다는 우리 농업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또 3000억 소득 보장을 포함한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농협 비상임조합장 관련해서도 늘 제기됐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 규정이 있으나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것 그리고 비상임화로 인해서 실제로 폐단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횡령 사고, 방만 운영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최근이나 실질적 지배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일명 바지사장, 이렇게 세워 놓고 뒤에서 조종한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비상임조합장 거의 36% 이상이 3선 이상 장기 재임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처럼 2회 연속 제한해야 된다고 보는데 중앙회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농협법 개정안에 있으니까 함께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무이자 자금 있지 않습니까? 무이자 자금 2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셨는데요. 무이자 자금이 중앙회장 쌈짓돈이다, 회원조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등 이런 농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무이자 자금 관련해서도 이런 비판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투명하게 운영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금의 조성과 운영, 지원 대상 선정, 자금운용계획 및 배분의 공개, 성과분석 및 평가 등 이런 내용을 담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의견이 어떠신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지금도 저희들은 무이자 자금 조성 부분이라든지 또 무이자 각종 지역농협에 지원하는 부분을 투명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 위원도 있고요.

○전종덕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런 내용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지난 21대 때 폐기된 농협법 개정안에 다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농협이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고 그리고 농민의 입장에서 더 많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농업이? 농촌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 입장에서 많은 개혁 과제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제 취임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농협경제지주가 계통공급 하고 있는 농자재나 농약 등이 시중가보다 비싸다 이런 얘기 순회하시면서 들으셨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들었습니다.

○전종덕 위원 계통공급은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량 구매하니까 짠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시중가보다 비싸다 이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거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지금 저희들은 여러 가지 조합장님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도 지역농협의 농촌조합장 출신입니다만 또 조금 전에 그렇게 지적했던 부분하고 약간 다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전종덕 위원 일단 농민들의 그런 언성이 있고 또 조합장님들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협경제지주가 제시하는 판매 가격이 농협마다 다 다른 거지요. 큰 농협은 더 짠 가격에, 작은 농협은 더 비싼 가격에 판매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역농협은 농협경제지주가 제시하는 그 판매가에 기초해서, 실제 거래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시하는 판매가에 기초해서 거기에 실제 수수료를 붙여서 농민들에게 판매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구매하는 농민 입장에서는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이런 구조가 있지요?

그런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시중 도매업체나 이런 데랑 거래하게 되면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경제지주를 통해서 계통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더 짠 가격에 구매를 해서 농민들에게 더 짠 가격에 제공하고 싶지만 농협경제지주를 통해서 구매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과가 있는 거지요. 후과가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런 계통구매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 이런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과가 뭐냐? 나중에 중앙회에서 지역농협을 감사할 때 감사 기준에 계통구매 실적이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판매장려금 그리고 무이자 자금 이런 걸 할 때, 이런 것을 지원 받을 때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계통구매를 하면 더 비싸고 농민들에게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을 알고 이것을 개선하고 싶지만 농협중앙회에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계통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이 왜 시중가보다 더 비싸냐’ 이렇게

제기를 하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기는 하던데요, 일반 업체에서 구매한 것을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 영수증 가져온 것과 농협에서 판매한 금액의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을 지원한다든지 나중에 연말에 그것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싼 가격으로 농민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구매 구조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농민들한테 싼 가격으로 해야 되니까요. 싼 가격으로 줘야 나중에……

농민들이 당연히 싼 가격에 구매를 해야지 시중가보다 비싸게, 그것도 농협에서 판매하고 농협에서 산 것이 더 비싸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1분만……

그래서 구조를 바꿔야 되겠지요.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지역농협에서 농협경제지주와 계약하는 업체의 계약가가 있잖아요. 계약가를 공개해 주고, 그 계약가로 계약하기 전에 공개해 주고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에 기초해서……

어쨌든 지역농협이 많으니까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싼 가격에 계약이 성립되고 그 계약원가를 공개해 주고 그것을 공개해 주면 농협 입장에서는 그것에 기초해서 농민들한테 판매가를 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조를 개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구조를 개선해서…… 실제로 이런 농협에 대한 구매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시중가격보다 비싼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또 시장 상인들이 행하는 일련의 여러 가지 장사 방법을 보면 무자료 거래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편법으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농협에서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고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계통구매의 이점을 확실히 해라, 왜 그렇게 하느냐, 민원이 이렇게 발생이 되느냐 해서 지금 많이 제도적으로 아마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하시는 이런 계통구매의 장점을 잘 살려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종덕 위원** 구조개선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구조개선? 지금 현재 계통 구조에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개선하게 할 의향이 있느냐고요. 개선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들으려는 거니까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어기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저…… 지금……

○**위원장 어기구** 2차 질의 때, 추가질의 때.

○전종덕 위원 이따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 문금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오늘 인사말씀에서도 강호동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농협 홈페이지를 보니까 인사말에도 ‘희망농업, 행복농촌 농협이 만들어 갑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주시고 지금 농촌의 현실을 봤을 때 과연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희망과 행복이 있는 농촌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또 농협법을 한번 봐 봤어요,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봤더니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에도 꽤 있는데 과연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 그런 상황이고요. 안타깝습니다.

PPT 자료를 한번 보시면 농업소득도 우리 지금 현재 농촌의 현실을 보면 21년에 비해서 23년도에 1114만 3000원으로 떨어져 있고 또 다음 농가부채도 봐 보겠습니다. 농가부채도 4158만 1000원에서 21년도에 3600…… 21년에 3600 정도에서 23년 4158만 1000원으로 14%나 증가한 상황이고 아까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또 임미애 위원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연체율도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농협이 보니까 이자수익이 상당히 많이 또 늘었더라고요. 32%나…… 21년에 비해서 32%나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상황인데 회장님 어떤 심정이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농협은행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이자수익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문금주 위원 제가 이제 묻고 싶은 얘기는 농협이 이렇게 농업이, 농촌이 이렇게 어렵고 농어민이 힘든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자수익이 이렇게 늘어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다 농업인들을 기반으로 한 수익 아니겠어요? 근데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역대급의 성과급을 또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말 과연 우리 농협이 농업인의 현실, 지역의 현실을 감안해서 존립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농협이 정부와 함께 22년부터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 경영비 부담 경감 그리고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서 무기질비료 인상분의 80%를 지원을 하고 있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문금주 위원 농가에서는 20%만을 자부담해서 비료를 구입하고 있는데……

PPT 자료화면 한번 보면 농협 요소비료 판매가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농민들이 실제 지원금을 받아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비용은 23년에 비해서 24년이 오히려 올랐고 24년에 약간 떨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판매가는 떨어지는데 구입가가 올라간다는 게?

그게 이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제가 살펴봤더니 아마 재정 당국에서 지시를 했을 것 같은데 비료 가격 인상액 산정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더라고요. 2023년까지는 21년 8월 가격 1만 600원이었던 기준이 올해에는 23년 3/4분기 농가 구입가 1만 2000원으로 변경이 돼서 아마 물가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찌 됐든 그럼으로써 농민들한테 부담하는 금액이 한번 따져 봤더니 22년에 무기질비료 지원 실적 물량이 85만t인데 20kg 무기질 요소비료당 1120원이 농민들에게 전가되었다고 보고 그걸 따져 봤더니 약 470억 원 정도.....

다음 PPT 자료요, 다음.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농가한테 더 부담을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봐 보세요.

지난 5월 17일 날 송 장관님께서 남세종농협을 방문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농협 관계자가 무기질비료 판매가격을 17일부터 4.3% 내린다고 보고를 하니 송 장관께서는 무기질비료 판매가격 인하가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리이렇게 발언한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보셨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잘 모르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언론에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언론에다가는 대국민들한테는 마치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농민들한테 476억 원이라는 비용을 전가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앞에서는, 언론에다가는 농민들한테 부담을 줄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부담을 전가하는 게 맞냐 이거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저는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요소비료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됐는데 여기 경제대표도 와 있습니다만 남해화학 사장한테 여러 가지 사항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렇게.....

○**문금주 위원** 회장님,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하고 말씀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서 우리 지역소멸이 올 수밖에 없었다, 지역소멸이 앞으로 또 가속화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가 거예요. 지역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농어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줘야 되는 농림부 등 중앙부처나 농협 등 이런 관계 공공기관이 하나같이 노력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이나 실제에서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농민과 지역을 외면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존립 기반은 농어촌, 농어민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로 대고 어렵고 힘들어 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쌀값, 소값만 봐도 그렇고요. 현장에서는 빨리 시장격리를 원하는데 차일피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루고만 있고요.

○**위원장 어기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10점 만점에, 지난주 업무보고에 10점 만점에 스스로 9점을 주는 낮 두

꺼운 장관님이나 대놓고 농민들,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여러분들이나 과연 존립 기반인 농어촌, 농어민을 위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회장님, 농촌에 꿈과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경기도의 여주시 양평군 김선교 위원입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님 취임 100일을 전후해서 현장 행보를 강화했다는 보도도 있고 저도 늘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현장 위주의 행보와 정책 마련에 적극 지지를 보냅니다.

회장님, 양곡법과 농안법 이 법률안에 대해서 농업 관련 단체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제가 직접 농민단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있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김선교 위원** 양곡법과 농안법에 대해서 말씀들 안 하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직접적인 저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선교 위원** 지금 우리 농촌 현실 어떻습니까? 농가인구 감소 가속화와 고령화로 농촌소멸이 점점 현실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렇지요? 진정 농촌과 농민을 위한다면 국가 재정을 영세농 또 청년농, 미래농업에 선택과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양곡법만 봐도 쌀 매입비와 보관료가 연간 약 3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 혈세로 이런 곳에 쓸 정도로 우리 농촌의 현실과 미래가 여유롭다고 보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여러 가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반적으로……

○**김선교 위원** 농협은 협동조합이고 협동조합은 농민 조합원을 위해 일해 오고 있지만 농협이 출혈 경쟁을 하기보다 우리 쌀의 고품질화, 브랜드화 전략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김선교 위원** 그래서 제가 또…… 이 여러 가지 농협의 현실입니다. 우리 지금 신용사업이, 농협은행이 순수한 우리 대한민국 자본이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맞습니다.

○**김선교 위원** 또 타 은행은 그런 데 있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타 은행은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민족자본이고 그런데 지금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어떻게 돼 갑니까? 신용사업에서 대출을 해 줬다든가 예금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 경제사업에 쓸 수 있어요? 돌려서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사업구조 개편된 이후에는 농협

은행은 농협…… 금융지주는 금융지주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이 되고 경제지주는 경제지주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김선교 위원 신경분리가 한 12년 됐지요, 분리된 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12년 됐습니다.

○ 김선교 위원 전문성과 대외적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회장님?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여러 가지 입장일단이 있습니다만 금융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선교 위원 그래서 농협은 기본적으로 농업과 농촌에 기여한다는 협동조합이라는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맞습니다.

○ 김선교 위원 맞지요? 그래서 23년도 농협 금융 부문은 순수익이 약 2조 2000억이 넘습니다. 맞는 통계입니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선교 위원 최근 농협이 수익이 높은 금융사업에만 집중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농업인을 위해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경제와 유통 사업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지금 저희들 사업구조의 개편 이후에 금융지주에서 수익이 안 나면 경제지주의 적자 부분이라든지 농협중앙회와 각종 지역농협에 교육지원사업을 하는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은행의, 금융지주의 역할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 김선교 위원 그래서 다시 경제·유통 부분을 재통합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저는 지난 선거 때도 이야기하고 취임식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경제지주가 원래 농협중앙회로 복원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김선교 위원 같은 생각이시네요. 그래서 농림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런 부분도?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김선교 위원 그래요?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 김선교 위원 그러면 좀 이 부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 김선교 위원 제가 하나로마트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알고 계시지요?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선교 위원 도농복합도시에서도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지금 신용·경제 포함해서 매출액 30억 이상 되는 데는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선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하고 농촌지역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맞습니다.

○**김선교 위원** 농협의 지점이 있다든가 그래서 하나로마트도 다 그 지점마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하나로마트에서도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의논할 용의는 없는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지역사랑상품권이 농촌지역에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로하신 조합원들께서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농협의 매출, 이익을 성장시키는 그런 것보다는 지역에 계시는 원로 조합원들이 사용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법 개정이 꼭 돼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게 왜냐하면 5일장도 있고 이렇지만 특히 편의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농촌지역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로마트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억 이상 이런 데는 제한을 두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상입니다.

○**전종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제가 방금 전에 시간관계상 자료 요청을 못 드렸는데요. 농협경제지주가 계통 구매·판매로 했던 품목별·업체별 계약단가하고요, 지역농협에 판매한 품목별 내용입니다. 품목별 판매가·판매량 등을 포함해서 최근 5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농협은 가능한 위원님 요구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반갑습니다. 세계 평화의 섬 제주시갑 문대림 위원입니다.

회장님, 취임 4개월 지났는데 뒤늦게나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회장님 취임사를 제가 읽어 봤습니다. 식량안보 문제, 농촌경제와 농가경영, 지역소멸과 농업인력 부족, 낮은 농가소득과 농가소득 양극화 등 농업·농촌의 위기라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회장님께서는 농업인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겠다는 포부도 밝히셨습니다. 그러셨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문대림 위원** 회장님의 위기 진단과 문제의식에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도 이러한 문제의식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데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문제의식과 포부와는 다르게 오늘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중요한 농정 현안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농업인을 대표해야 될 중앙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현재 농업 분야 최대 쟁점인 양곡관리법 그리고 농안법 개정과 관련해서 그간 회장님이나 중앙회의 발언 내용과 현재 입장을 요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 두 법안은 회장께서 지적한 농가소득과 식량안보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된 중앙회의 입장 또는 회장님의 입장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해당사항 없음’이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 개정과 같은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는 농정 현안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한 회장의 유의미한 공개 발언도 없고 보도자료도 나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중앙회의 태도는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뿐만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도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5월 13일 서울경제에 보도된 ‘양곡법, 농안법에 입 꾸 닫은 농협중앙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농협중앙회 관계자라는 분은 ‘그와 관련된 말을 해서 좋을 일이 없으니 안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사안이라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농업인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권익 보호 이것은 정치적 사안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농협중앙회나 농협중앙회장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게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농업·농촌 현안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도 양곡관리법 못지 않게 쌀 가격 안정화에 대해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저는 얼마 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님의, 아까 존경하는 문금주 위원님께서 점수 내용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송미령 장관님이 국감에 임하는 태도는 매우 전투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 9점이라고 과감하게 대답을 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공격적으로 방어하고 답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장관으로서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야 간의 입장을 조율하고 야당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법안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 안으려는, 수용하려는 기본적 자세, 조정하려는 자세들이 있어야 되는데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올바르지 못한 태도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오히려 이 어려운 농촌·농민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어쩌면 강력하고 투쟁적 입장을 견지해야 될 농협중앙회장님의 태도는 마치 농림부장관님처럼 좀 부드러운 모습으로, 내가 그리는 장관의 상처럼 변하고 있다, 저는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정부의 시장관리정책 실패에 기인한 책임을 농업·농촌·농협이 떠안아야 되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그게 결국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상당한 의견 교환, 입장 개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정부의 눈치만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회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앞으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임명된 장관이나 기업의 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인들이 투표를 해서

뽑힌 그런 농업인들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선출직의 의미가 뭡니까? 그분들의, 뽑아 주신 분들의 이해와 요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대변하는 그런 회장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서국동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의원실 주관으로 재해보험 개선 관련 토론회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2명의 발제자와 4개 품목 현장 농민들로부터 보험 개선 요구사항이 제기됐습니다.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검토한 내용과 답변을 저희 의원실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PPT……

토마토뿔나방 피해 사례 들어 보셨습니까?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문대림 위원** 각종 병충해가 다양한 작물로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현재 보험에서 보장하는 품목이 몇 개나 되지요?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7개 가까이 됩니다.

○**문대림 위원** 4개이지 않습니까?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저 품목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4개밖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품목이요, 품목. 벼 감자 고추 복숭아, 4개뿐이지 않습니까?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맞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데 병충해 관련……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어기구** 예, 마무리 1분.

○**문대림 위원** 인정 범위와 대상 품목을 조속히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지금 농식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산정 방식, 지원 범위, 수확량 감소 부분을 평균수확량에 합산하는 부분까지 다양하게 제도개선 과제들이 나왔습니다. 저희 의원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좀 찾아 주시길 바라겠고요.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특히 현재 품목별로 가입률이 15%도 안 되는 품목들이 꽤 많습니다.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래서 제가 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면서 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실효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나름대로 작목별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맞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 이유들에 대해서 그 작물의 특성 그리고 농사의 실정을 잘 아는 손해평가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한 것이다. 이런 부분도 함께 의논하고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회장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서삼석 위원 취임하신 지 지금 넉 달째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넉 달 됐습니다.

○서삼석 위원 조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구성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12만 명 정도 됩니다.

○서삼석 위원 역사는 얼마나 되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서삼석 위원 역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63년 됩니다.

○서삼석 위원 조직원, 구성원과 역사에 비해서 농협중앙회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 역할도 그 정도 될까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서삼석 위원 ‘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질문을 잘 듣고 대답하셔야지.

구성원의 규모, 짧지 않은 역사에 비해서 그 위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나름대로, 조금 전에 제가 인사말씀할 때 드렸습니다. 60년의 역사……

○서삼석 위원 제가 한 얘기 다시 하지 마시고, 시간 가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러면 뭐 미미하다는 얘기네.

인사말에서 농촌 직면 현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대책, 쌀값 하락, 소값 하락, 농촌 일손 부족 이런 것을 잘 지적하시고 또 취임 일성으로 농업·농촌의 위기를 뭐라고 규정했는지 모르겠고 변화와 혁신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고, 특히 활력을 잃은 농촌을 살아 있는 농촌으로 바꾸려면 현장 농·축협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또 중앙회의 모든 사업은 조합원과 농·축협 입장에서 추진하도록 체계를 개편하겠다,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 얘기는 여러 위원님들이 물을 때마다 답변하시는 내용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무성의한 거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 노정돼 있는 얘기인데 ‘농업은 생명이고 농민은 희망이다’ 이런 말이 있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서삼석 위원 그러면 농협은 뭘까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저희는 농협의 존재 가치는 농민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농협 목적에 준해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농협의 목적에 농민의 가치를 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자기 스스로 가치를 느끼고 있을까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저희 농협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마는 농촌이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신임 회장에 대해서 저는 기대가 많을 것이고 그리고 100대 공약도 발표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방금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 질의에서 나온 얘기처럼 입도 열고 지갑도 열고 금고도 열고 마음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중에 더 중요한 것은 지갑, 금고, 마음보다도 중앙회장의 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여러 가지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 정도 가지고 의지를 저희들이 가늠할 수 없어요.

몇 가지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농협의 설립 목적에 복지·문화생활 지원사업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곰곰이 뜯어 보니까 중앙회 교육 지원 부분 보면 복지 부분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지는 복지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좀 더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가칭 교육·복지 지원 부분으로 바꾸면 어떠냐, 그리고 그런 명칭에 걸맞은 그런 역할을 더 늘려 나가면 어떠냐 하는 그런 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농협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역농협의 복지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것도 검토.

진짜 검토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지역농협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제정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혹시 그 법 알고 계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잘 모르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 밑에 참모들 좀 문제가 있네요.

이게 지자체하고 지역조합 간 상생과 협치를 통해서 소멸 위기에 있는 그런 현장들을 복하게 하라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협동조합을 위해서 만들어 드린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지금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라도 잘 들여다보셔 가지고 이 법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어려운 회원조합들이 활성화되고 회생도 되고 그런 계기가 되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교육도시키고 홍보도 시켰으면 좋겠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이것 중요한 겁니다.

회장님 오시기 전에 전직 회장님 계실 때 관계자들한테 그렇게 누누이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단 한 번도 교육을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홍보를 안 했어요.

다음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시고 이 법이 필요 없는 법인가, 필요한 법인데 홍보가 안 됐던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서삼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일선의 조합원들이 대부분 고령화돼 있잖아요, 특히 어려운 농어촌·시골 같은 그런 조합원들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운전면허증 반납 관련해서 조합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달라, 검토를 한번 해 달라는 그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고령화된 조합원들의 면허증 반납 관련된 것.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면허증이요?

○서삼석 위원 예.

그랬을 때 그 조합원들한테 협동조합이, 농협중앙회가 무엇을 해 줘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한번 앞장서서 검토해 보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다음에 양곡관리법·농안법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계시는데 지갑도, 금고도, 마음도 놔두고 입을 열어 달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농림부보다 훨씬 농민 편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게 바로, 농민들은 솔직히 농림부에 기대는 것보다 농협에 희망을 걸고 농협에 기대는 것들이 더, 농협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체감도도 높기 때문에, 실제로 역할도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농민들이 부탁을 안 하고 접근을 안 하고 요구를 안 하더라도 선출직으로 당선되신 중앙회장이시니까 이와 관련된 그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서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어기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위원입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와 하파그로이드가 결성한 제미나이 협력에 대해서 아시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 제미나이 협력은 내년 2월에 출발하는데 부산항을 패싱해서 부산항이 허브항의 지위를 상실하고 피더항으로 전락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알고 계세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항만공사가 올해 4월인가 봐요, 제미나이 소속 2개 선사 본사를 방문해서 사실관계도 확인하고 향후 계획도 파악했는데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소득이 없었던 건 아니고 실제로 제미나이……

○송옥주 위원 소득이 없으셨던 거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아직은……

○송옥주 위원 또 계속 질문을 이어 가니까 나중에 같이 섞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송옥주 위원 이 제미나이 협력이 올해 3분기에 예비 스케줄을 발표하고 4분기에는 전체 스케줄을 공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부산공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내년 2월부터 이 머스크와 하파그로이드 선박들이 부산항이 직기항이 아니고 6000~9000TEU급을 투입하는 셔틀로 운송된다고 하는데 이 직기항으로 할 때랑 그렇지 않고 셔틀로 운송할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직기항을 하게 되면 부산항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또 싱가포르항을 가게 되는데 셔틀을 이용을 하면 부산항에서 말레이시아 탄중펠레파스까지 바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15일 정도 오히려 단축이 됩니다.

○송옥주 위원 단축이 된다고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송옥주 위원 그런데 왜 업계나 관련된 데서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관련 업계에서는 최근에 개장한 동원글로벌터미널도 경쟁력을 잃을까 우려를 하고요. 또 진해신항이라든지 가덕도도 앞으로 개발될 인프라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다, 이 영향은 좋은 영향이 아니라 우려의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악하고 계세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직접 제가 본사를 방문해서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송옥주 위원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아까 인사말씀을 하실 때 보니까 부산항만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항만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거대하게 발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은 왜 별도로 보고도 안 하시고, 위원들에게 그러면 허위로 아니면 너무 과장되게 이 공사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건 아니세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허위로 한 게 아니고 시간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송옥주 위원** 시간이 제한돼 있어도, 부산항은 전국 물동량의 77%를 차지 하고요. 전국 환적물동량의 97%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항만인 거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부산항이 제미나이 협력에 의해서 흔들린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항만사업과 우리 공사는 어떻게 운영이 될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 환적사업은 글로벌 선사들이 기항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요. 또 내년 초에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재편될 계획이다, 저희가 그런 향후 동향 파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운사지요. HMM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디얼라이언스가 해체 위기에 있다 그런 동향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송옥주 위원** 그렇지는 않으시고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송옥주 위원** 또 이게 미국 대선도 있고요. 또 유럽의 대통령선거나 여러 가지 선거가 있는데 이런 정치 상황이 변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될 거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향후 수출이라든지 통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부산항에 대한 물동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제미나이 협력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항만공사에서 너무 대책도 없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현실 파악도 없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사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 구체적인 거를 시간 제한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별도로 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제미나이 협력은 금년 초에 발표가 되었고 발표되고 난 이후에 4월에 직접 제가 머스크하고 하팍 본사를 방문해서 내용도 확인을 했습니다.

○**송옥주 위원** 파악은 하셨는데 그 내용이 부산항만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물동량과 해운사업에 그렇게 유리하게 파악을 하신 건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아니고, 북미 항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북중국 화물이 부산항에서 환적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늘어나고, 다만 유럽발 환적은 한 0.7% 정도, 전체 물량 중에 제미나이 얼라이언스가 처리한 물동량이 0.7%, 한 10만TEU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향도 미미하지만 아직은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사장님께서 ‘아직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아직이라는 그런 해이한 자세라든지 그런 발언 자체가 나중에 이 사업에 큰 영향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이라는 부분들의 표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좀 더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그런 식으로 궁정적으로 말씀하시는는데 이 제미나이 협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또 특히 부산항에, 부산의 지역경제나 일자리도 다 연계돼 있는 부분이어서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구체적인 부분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아무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새겨듣고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보완 방안,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협중앙회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이게 업무보고 89페이지네요. 25년 이후에 군 급식 농축산물 수의계약 유지에 대한 민원과 같은 거지요, 그렇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송옥주 위원** 군 급식에 대한 농수산물을 수의계약을 계속 유지하자라는 제안을 이렇게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도 다양하게 말씀을 주시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국방부 사업은 전제조건이 있네요. 자구노력을 충분히 하고 나서 요청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군납농협에 대한 규모와 품목 확대, 사업 다변화 추진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인사말씀 중에, 회장님께서 아주 그냥 목표치가 엄청 크시네요. '농업소득을 3000만 원 시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1000만 원을 벗어나기도 수년 동안 쉽지가 않은 부분들인데 회장님이 되셔서 3000만 원이 되면, 이 얘기를 듣고 농민들과 조합원들은 좋을 텐데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3000만 원의 목표를 실현할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지금 현재 농업소득이 1114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는 현재 쳐해져 있는 여러 가지 농촌 현황을 좀, 청년 농업인을 직접 육성하고, 특히 현재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하우스 농가가 많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이 돼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이런 농가를 스마트팜 농업을, 지금 스마트팜 농업이 안 돼 있는…… 양액재배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인력 절감 그다음에 원가 절감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을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

○**송옥주 위원** 회장님, 설명은 구구절절이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실천 방안과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오전에 인사말씀하실 때 많은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어, 3000만 원?'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짜야?'라고 속으로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에 질문한 군 급식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구노력이 어디까지 있는지 간단하게, 30초 남았거든요. 그 안에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여러 가지 지금 군 급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이렇게 해서, 지금 최저입찰계약으로 했어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양축농가 라든지 또 우리 지역농협이 군납을 하는 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방부에 이야기하는 70% 선까지만 유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양축농가도 보호하고 지역농협의 여러 가지 군납을 하는 그런 농협의 어려움도 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 한 70% 정도는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저와 우리 농협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강호동 회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지역조합장 출신이기도 하고 또 취임 이후에 100일간 현장을 죽 다니시면서 농정 현장을 죽 확인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계획도 말씀하시고 하셔서 큰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농업지원사업비, 농지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는 2013년부터 아마 36개 계열사를 통해서 농업·농촌지원사업 명분으로 연간 4000억 원에서 한 5000억 정도의 규모로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서천호 위원 농협법 제159조의2에 보면 농업지원비 부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농업지원비를 부과한다고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법규상 규정되어 있는 농업지원비의 목적에 좀 벗어나는 형태로 집행이 되어 왔다, 알고 계신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의 33%가량이 농협중앙회 직원들의 인건비나 특별 퇴직금이나 경비 등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2019년부터 23년까지 총 3조 5600억 중에서 1조 2000억가량이 인건비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3000여 명 직원 중에서 2000여 명의 인건비 등 경상비로 사용이 됐다 그런 데이터가, 지금 제출된 데이터를 보면 2023년도만 하더라도 인건비 등 경상경비로 2075억이 지출된 사안입니다.

농협중앙회의 관리감독기관인 농림축산부 감사에서도 지난 2018년도에 이 사항을 감사했고 지적을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내용은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농업지원사업비 1조 5396억 중에서 45.7%를 인건비, 사업 외 지출 비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적절한 집행이었다라는 부분이 농림식품부 감사에서도 확인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이후에 제도개선이라든지 예산집행지침의 변경이라든지 규정 변화가 있었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고요. 있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없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마사회장님, 마사회 미지급 환급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지급 환급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들이 있습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고객분들께서 마권을 분실하거나 맞췄는데 맞췄다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주로 그런…… 그다음에 또 잊어먹거나 이런 착각에 의해서, 맞췄는데 안 맞춘 것으로 착각한다든지 그런 속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지난 5년간 자료를 보니까 적게는 10억, 많게는 60억까지도 매년 소위 미지급 환급액이 발생하는데 맞나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이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지금까지는 저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채무면제이익으로 해서 수익으로 회계처리가 되고 예산총칙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습관성 도박 예방이랄지 또 치유, 고객 편의서비스 증진 이런 데에 사용한다 이렇게 예산총칙을 세우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수익으로 들어오면 그 이익 중의 7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종합해서 하신 말씀을 정리하자면 미지급 환급금은 마사회의 수익으로, 채무면제이익으로 지금 일반예산으로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기업회계기준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서천호 위원** 회계기준이 그렇다?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서천호 위원** 그러면 그 비용 중에 70%는 지금 축산발전기금으로 사용되고 30%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30%는 이익잉여금과 또 20%는 사업 준비·확장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상으로 예산편성이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습관성 도박 예방이랄지 치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사회의 일반예산편성지침 내용을 보면 사회공헌, 습관성 도박 치료, 고객서비스 증진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런데 ‘상당 금액’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미지급 환급금을 편성하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나, 몇 %가 편성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침이 없는데 맞나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것 왜 지침을 안 두지요? 공돈이라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서천호 위원** 왜 지침이 없이 이걸 예산으로 편성하지요, 지금 2년 치가 200억이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상임위 때까지 왜 정확한 지침 없이 상당액이라는 표시를 해서 유보금 상당액을 사회공헌, 그러니까 일반예산에 편성되는 항목에 끼워 넣어서 편성이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만약에 관련 규정이나 근거가 없다면 마련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미지급 환급금 부분은 마사회에서 넘으로 받는 수익입니다. 그렇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마권 빨매로 오는 수익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쁘게 얘기하면 공돈 같은 금액인데 이 부분은 오히려 필요하다면 축산발전기금으로 70%를 낼 게 아니라 100% 축산발전기금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들을 잘 살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아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게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사회공헌기금이나 아니면 축산발전기금으로 전액 전환을 시켜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그런 취지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 결과를 보고를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입니다.

저는 농협중앙회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랜 단위조합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중앙회장에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대가 큰 만큼 더 많은 노력으로 많은 일 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지역 간 여러 가지 균형적인 인사 이런 것을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동의합니다.

○**주철현 위원** 화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지난 3월 7일 날 SBS에서 회장님이 취임 첫날부터 신임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첫 인사를 단행했다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이 보도 보고 뭐 느끼신 것 없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뭐 첫 인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뭐 비서실장이 같은 동향 출신이고 그렇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협중앙회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르면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직원에 대한 임명권자는 전무이사입니다, 전무이사. 부회장이지 회장님이 전혀 권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마치 회장님이 임명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회장님이 신임 비서실장을 임명하신 건가요? 실제 임명하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임명되신 겁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제가 임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회장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주철현 위원 회장님께서 전무이사에게 요청을 해서 임명이 되신 모양이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여러 가지 의견은 나누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회장님이 원치도 않았는데 그냥 임명됐단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시잖아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그것은 아닙니다.

○주철현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서실장은 물론이고 비서실 직원 한 명 임명권이 없는 게 현재 회장님의 법적 권한입니다. 이런 법률과 정관, 관련 규정에 대해서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맞지 않고 생각하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농협중앙회장은 그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협이 책임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회장한테 그에 걸맞은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시겠지만 2004년 농협법 개정하면서 최고경영자였던 중앙회장직을 비상임으로 전환을 했고 신설된 사업 전담 대표이사, 즉 전무이사와 상호금융대표이사에게 실질적 법적 경영권이 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농협법 127조가 원칙적으로 회장님이 농협 중앙회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하 조문에서는 전무이사와 상호금융대표이사, 조합감사위원장의 업무에 관해서 해당 임원이 중앙회를 대표하고 회장님은 대표권이 없다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조합감사위원장 업무 빼놓고 중앙회에서 회장님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뭐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지난 2004년도 1월인가 12월 달에 농협법 개정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협법 개정을 하면서, 부회장이나 상호금융대표 또 조합위원장한테 권한 일부가 위임되어 있었는데 그 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중앙회장한테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권한이 일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현행 농협법에 따른 중앙회장의 직무는 회원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과 총회와 이사회 의장직 수행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결국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직 수행이 법적 권한이고 나머지 조합원 권리증진을 위한 대외활동이라는 게 명분뿐인 것이고 이런 상황인데……

물론 총회와 이사회가 워낙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어서 그 의장직 수행도 막강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사회 의장이라는 것이 n분의 1이잖아요. 전체 이사회 회원이 몇 분입니까? 28명인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28분의 1밖에 표결권이 없으시잖아요. 회장님 그러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주철현 위원 그런데 회장님이 사실상 농협중앙회와 그 계열사, 관련 금융기관 모든 인사권부터 시작해서 권한을 다 장악하고 있는 재벌 회장급에 벼금가는 이런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회장님께서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공식 입장이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저는 중앙회장은 1111명의 조합장을 대변하는 그런 자리고 해서 중앙회장이 가져가는 여러 가지 역할이, 권한이 일정 부분 있어야 우리 220만 농어민을 위하고 전국 1111개의 농협을 위하는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런데 이제 법상은 별 권한이 없는 것처럼, 아까 이사회 의장하고 총회 의장밖에 없지만 법상 권한은. 실질적으로는 모든 권한을 다, 인사권부터 시작을 해서 농협중앙회를 사실상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이런 현실과…… 법과 현실이 틀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님의 지금 초법적인, 법 이상, 법률에 정해진, 정관에 정해진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저는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만 전국 1111분의 조합장님에 의해서 직선제 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회장으로서 이렇게 농협중앙회의 경영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철현 위원** 이게 사실상 지금 법적으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사회 의장, 총회 의장 이 권한을 근거로 해서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계시는데 이게 법을 좀 고쳐서, 정관을 고쳐서 회장님의 권한을 좀 명확히 하고 권한을 주고 또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동의합니다.

○**주철현 위원** 예.

회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매일 출근하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매일 출근합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비상임인데 매일 출근하신다는 말이에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할 일이 많습니다.

○**주철현 위원** 월급도 받습니까? 아니면 활동비만 받으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월급이다 그런 명분은 없고 비상임 회장의 활동비 주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활동비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주철현 위원** 1분도 안 주시렵니까?

마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마무리하십시오.

○**주철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기형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농협도 많이 투명화됐고 또 준법의식이라든지 외부에 의한 감시, 투명성 이런 게 높아졌기 때문에 권한과 실질을 일치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직선제인 중앙회 회장으로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법을 좀 바꿀 수 있게 자체 법 개정안을 낼 의향이 있습니까? 안 되면 저한테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정을 하겠습니다.

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법 개정을 좀 도와주시면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농협중앙회의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현재는 그런데 법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과도하게 인사나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잘못하면 탈 날 소지가 있으니까 특별히 좀 자제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회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또 현장의 100여 곳을 도셨다고 하니까 또 현장에 있는 농민들, 조합장님들의 목소리를 많이 가슴속에 새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예, 저도 듣는 바에 의하면 농촌 농협을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육성하고 키우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기대를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으신 것이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사실 오늘 지금 현안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쌀값입니다. 두 번째가 한우값이고요. 쌀과 한우가 사실 우리 농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현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호우 피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데이터를 보시면 21년, 22년, 23년인데 사실 쌀 매입 현황입니다. 농협이 21년에 190만t, 22년에 160만t 그다음에 23년에 200만t을 매입했지요, 그렇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런데 정부는 21년에 79만t, 22년에 77만t, 23년에 40만t이거든요, 그렇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이원택 위원** 그런데 정부의 역할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쌀값이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부 추곡수매를 좀 늘려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예, 사실 지금 쌀값이 18만 원 초반대로 내려가고 있고 저는 좀 더 가면 이제 17만 원대로 또 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의 역할이 충분치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농협은 200만t이면 역대…… 최근 3년 통계로 볼 때 최대로

많이 매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잖아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맞습니다.

○이원택 위원 다음 PPT 좀 넘겨 주시겠어요.

그런데……

원래대로 돌아와 주세요. PPT 원래대로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농협의 재고물량이 50만t 정도 되고, 현재 그다음에 민간에 재고물량이 한 25만t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월 쌀 소비량이 한 30만t 정도 되면 지금 원래 10만t 정도를…… 원래 15만t 중에서 10만t, 5만t은 정부가 추가 격리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10만t 정도를 더 정부가 추가 격리를 해야 쌀값이 좀 잡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그것을 하지 않고 10만t을 지금 농협에 다시 처리토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협 경영 차원에서요, 그렇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저희들이 꼭…… 농림부에서 농협에 그렇게 전가했다 기보다는 우리 농협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소비 촉진에……

○이원택 위원 그러면 제가 중앙회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무이자 자금을 줘서 3개월 유예시키는 것으로는 쌀값 하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다음 PPT 넘겨 주시면, 9000억 정도는 3개월 상환유예 했는데 이게 뭐 97억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비용 97억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지금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안 됩니다. 그 10만t을 각 지역농협이 저가 투매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곧 신곡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저가 투매하면 쌀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중앙회가…… 방금 중앙회장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10만t을 저가 투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10만t을 추가 격리하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가 격리하지 않으면서 그 10만t을 농협보고 경영상 잡고 있으라고 그러면 저는 지역농협의 조합장님들 들어 보면 다 저가 투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곡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쌀값을 하락시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쌀값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쌀값을 더 떨어트리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요.

농협이 책임 있게 하려면 그 10만t을 농협이 저가 투매를 안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저희 농협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협이 아까 정부는 5만t 외에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정부가 10만t을 추가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거고 농협은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저가 투매하면 결국 쌀값은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3년 쌀이 떨어지면 24년 신곡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당연히 영향이……

○이원택 위원 당연히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효적인 대책을 정부가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농협도 거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겁니다.

농협이 또 하나 보면 소비 촉진, 판매 확대, 쌀 가공품 이런 것을 통해서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중앙회장님, 이 정도 하면 쌀 몇만t 정도를 소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저는 밥 먹기를 전국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몇만t 정도, 목표가? 제가 요청한 바에 의하면 목표 설정을 못 했어요, 중앙회에서. 저희가 자료요청한 바에 의하면 목표 설정은 안 됐어요,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계획은 있지만. 그러면 도대체 쌀 소비 촉진은 얼마큼 할 거냐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중앙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정말 과감한 추진력을 보여 주셔야 된다. 그러나 목표 설정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시성 행사로 끝날 수가 있다.

중앙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그래서 제가 1000억 예산을 지금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갖고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시행계획을…… 저도 1000억이라는 데이터를 봤는데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목표가 없는 행사는 이게 100m를 갈지 1000m를 갈지 10km를 갈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표를 정해서 과감하게 대책을 수립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회에서 소비 촉진이나 판매 대책, 쌀 가공품, 자금 지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1분만 더 주시겠어요?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쌀값이 지금 18만 원 초반대인데 17만 원 후반대로 또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각심을 좀 중앙회에서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리고 아까 임호선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농식품부가 쌀 5만t 격리할 때 농협중앙회하고 협의 과정이 없었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5만t 격리할 때 협의보다도 정부에서 5만t 격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이원택 위원** 통보가 있었던 거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이원택 위원**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겁니까? 통보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아니,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원택 위원** 예, 그렇지요?

나머지 10만t은 농협중앙회에서 잘 해결하라 이런 얘기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격리를 해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걸맞은 소비 촉진을 확실히 하겠다 저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원택 위원** 예, 지금 여기 농식품부 관계자가 나와 있을 텐데요. 제가 쌀을, 쌀값과 관련해서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정부가 10만t 격리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앙회장님께서도 상황유예라든가 소비 촉진 대책이 부족해 보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희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정기환 마사회장님!

인사말씀에 보니까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2등급 받았다고 신뢰받는 공기업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고 하셨던데 축하드립니다.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고맙습니다.

○**정희용 위원** 몇 년 만에 2등급 받으신 거예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정희용 위원** 기억도 안 나시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정희용 위원** 책임감 느끼셔야 됩니다.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열심히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희용 위원** 회장님 하시고 그 전에 상임감사 하시고 그 전에 적폐청산위원장 하시고 마사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계시면서 이제 2등급 받았는데 그것을 엄청 막 자랑할 일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좀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정희용 위원** 회장님,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 때 88 승마경기장 안에 86 아시안게임 저기..... 경기장의 전광판 호화시설로 만들어 놓고 예산 삼천몇백만 원 잘못 썼지 않냐고 물었고 회장님 그 시설 이용한 적 있느냐고 제가 물어본 기억 나십니까? 그때 기억 안 난다고 그러셨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그 질의 생각납니다.

○**정희용 위원** 이용하셨었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이용한 적 없습니다.

○**정희용 위원** 한 적 없습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정희용 위원**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감사를 했나 봐요. 그래 가지고 당시 담당자한테 수의계약, 계약 관련해서 뭐 좀 위반했다 아래 가지고 경고·주의 처분을 줬다고 하는데 이게 좀……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직원들한테? 이런 시설 할 때 못하게 했어야지요. 그때 감사 재직 시절이지 않습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아닙니다. 이게 제 감사 재직 전에 계획이 서서……

○**정희용 위원** 이 공사 기간이 200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인데 어떻게 아니에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그때는 이게…… 1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은 1차 감사 사항이 아니라서……

○**정희용 위원** 아니, 이게 3200만 원 들었다고 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무슨 1000만 원 미만입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최종적으로 이제……

○**정희용 위원** 분할해서 쪼개기 계약한 것이지요. 그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근 감사에서 드러난, 적발된 사안이고……

○**정희용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나서……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정희용 위원** 예? 그럼 당시에……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그게 제 취임 전에 기본계획이 서서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정희용 위원** 조직의 수장이 당시에 몰랐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직의 수장의 자세가 아니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정희용 위원** 그런 자세로 일했으니까 이제 겨우 청렴도 2등급 받는 겁니다, 지금.

 지금 온라인 마권 몇 명, 몇 분쯤 등록했습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한 6만 1000여 명 됩니다.

○**정희용 위원** 6만 1000분 등록했습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정희용 위원** 그러면 장외발매소 이용객이나 우리 경마장 이용객이나, 모바일앱 장외 발매소 이용하는 이용객은 좀 줄어들었습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러면 온라인 마권 이용하시는 분이 느는 만큼 현장 방문객이 줄어야 사실은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추이를 좀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정희용 위원** 그런데 사실 온라인 마권의 취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접근을 못 하기 때문에 온라인 마권 제도를 우리가 고민해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런데 마사회의 수입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가 지금 회복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정희용 위원** 그러면 마사회의 수입이 어느 정도가 적정 수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그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기는 힘드나 경마산업의 그 기본 취지가.....

○**정희용 위원** 아니, 이해하기 힘든 게 아니라 경마산업이 사행성도 있는 산업인데 무한대로 수입을 늘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회장님?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마사회의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세수 확보와.....

○**정희용 위원** 국가 세수 확대한다고 사행성 산업을 막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또 사회 안녕 질서 이런 것들이 지켜지고, 대개 그런 것들을.....

○**정희용 위원** 그래서 마사회에 근무하는 직원 수.....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법률이 허용하는 적정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들어 보세요, 회장님!

○**위원장 어기구** 회장님, 위원님 질의를 듣고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무슨 말 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말씀하십시오.

○**정희용 위원** 적정 규모를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질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으나’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계십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저희는 사감위에서 총량을 주거든요. 딱 그만큼 하게 돼 있거든요.

○**정희용 위원** 그러면 이제 온라인 마권이 활성화돼서 그 총량만큼만 달성이 되면, 그러니까 온라인 마권 매출과, 일반 경마장에서의 매출의 회복 추세를 보면 온라인 마권 범위를 줄여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고민도 같이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평평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마사회에서 마권 판매를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갈 건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사행심을 억제하면서 이걸 할 수 있는가 이걸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뒤에 대해서 지적받지 마시고.

그리고 앞선 질의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불법 사이트 단속 철저하게 하시고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정희용 위원** 지난번에 장외발매소에서 모바일 앱으로 이거 하는 것 제가 이야기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때도 지금 기술적 대안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육억몇천만 원 들여서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시스템 구축을? 그러면 그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런 외부적 요인에 의한 정보 보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패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마권에도 굉장히 불안함을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장외발매소, 모바일 앱 구매할 때도 회장님께서 또 재직하고 계셨기 때문에 회장님의 그런 어떤 보안 의식, 이 IT 기술에 대한 그런 걸 회장님이 철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문제 생기면 그때 돼서 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회장님.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이거는 그때 지적된 것은 제대로 다 수습이 됐습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임시조치 했고요. 기술개발 이렇게 했으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전문가 자문이나 금융회사 벤치 마킹 이런 것들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이거는 이제 온라인 마권으로 가면 장외발매소에서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줄었을 거지 않습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이게 일반적인 모바일 전체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아이폰만 해당되는 건데……

○**정희용 위원** 아이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아이폰은 현재 제조사의 보안정책상 위치정보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정희용 위원** 내가 이번 국정감사 때 이야기하려고 끝까지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농림부는 도대체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도 제대로 가서 딱, 마사회 딱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신뢰받고 안정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하여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국정감사 때 다시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정희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차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회장 취임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감사합니다.

○**이양수 위원** 농협중앙회가 금융지주 지분의 100%를 다 가지고 있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래서 중앙회는 사실 특별한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나 이런 것, 어떤 경제장치 없이 금융지주의 자회사들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금융지주의 인사에도 관여하시나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특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여러 가지 의견은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금융지주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거기의 비상임이사가 조합장 출신들이 대대로 가고 계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대대로 갔다기보다는 저희 금융지주에는……

○**이양수 위원** 현재 가 계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한 분씩 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예.

금융지주 하는 일하고 농협중앙회 전체 일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있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특히 금융지주는 금융사고 예방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내부의 통제도 좀 중요하고 또 금융 전문성이 사실 좀 있어야 되고요. 또 금융사업이 사실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내부통제가 일을 잘 몰라서 잘 안 될 경우에는 금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2012년에 신경분리를 했잖아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이양수 위원** 그 이후로 꾸준하게 금융지주에 대한 중앙회의 지배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점이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회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사업구조 개편이 농협법에 의해서 사업구조 개편이 됐습니다, 은행법이라든지 신협법에 의해 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

○**이양수 위원** 그거 다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이렇게 여쭐게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이양수 위원** 중앙회가 금융지주에 대한 지배력이 현재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양수 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신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이양수 위원** 지금 중앙회에서 파견된, 파견이라고 할 수는 없고 중앙회에서 금융지주로 비상임이사도 가 계시고 자회사 인사에도 관여를 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금융지주의 어떤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저는 인사를 하면서, 제가 직접적인 인사를 지금 세부적으로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부분은 농협중앙회에서 경륜과 경험이 있는 분들을 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에서 추천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 결여 내지는 부족한 부분은 저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지금 이제 5대 금융지주가 있잖아요. 다른 금융, 신한 국민 KB 하나 이런 데. 다른 계열사 대표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지주회장이 참여하지 않는 곳은 농협금융이 유일하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인사 추천위원회에서……

○**이양수 위원** 금융계열사 거기의 임원추천위원회에 지주회장이 참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주회장이 자기네 자회사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거는 농협이 유일하다는 거지요. 이게 지금 적당하냐는 거예요. 그게 적절한 제도라고 보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저희 농협하고 타 금융하고는 근본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주의……

○**이양수 위원** 지주회장은 보통 금융 전문가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금융지주 회장이 나름대로 책임성을 가지고 금융지주 자회사들의 인사라든가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아니면 경제사업 위주의 이런 것들, 전체를 통괄하는 중앙회가 금융지주 자회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타당하냐, 어느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저는 농협중앙회의 정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지주 회장이 꼭 그렇게 인사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이양수 위원** 그러면 중앙회장님이 금융 전문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그거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중앙회장은 꼭 금융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제 말씀은 금융지주 회장의 역할이 강화가 돼야, 중앙회장보다 강화가 돼야…… 이렇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도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없으면 과연 제대로 된 자회사에 대한, 금융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자회사들에 대한 책임성, 통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맞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양수 위원** 그런 회장님들의 생각 때문에 여태까지 계속 그게 안 바뀌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데 오늘은 업무보고 차원에서 문제 제기 정도 하고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안병우 축산대표님.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예.

○**이양수 위원** 마이크 좀 갖다 주시고,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하세요.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서서 하는 게 편해요.

○**이양수 위원** 앉아서 하세요.

5월 16일 날 도축 수수료 인상하셨지요?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예.

○**이양수 위원** 축산농가들이 이 인상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예, 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하고 있지요.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축산농가들이 집회도 하셨잖아요. 지금 축산농가들이 대단히 어렵지요?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예.

○**이양수 위원** 물론 농협이 지금 6년간 도축 수수료 동결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6년간 한 것 맞지요?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예.

○**이양수 위원** 되게 잘하셨던 것 같아요. 잘하셨는데, 하필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도축 수수료를 이렇게 인상을 하면 축산농가들 입에서 좋은 소리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축산농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서운한 거거든요.

이게 잘될 때 좀 올리든지 해야지 6년 동안 동결하다가, 또 6년 사이에 좀 잘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동결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6년 동안 안했으니까 농협은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렇긴 하지만 요즘 굉장히 어려운 축산농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원상회복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저희가 5월 달에 시행을 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장기간 동안 저희가 좀 억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원상회복하실 의향 있으세요, 없으세요?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지금 원상회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이양수 위원** 이거 방안을 한번 좀 마련해 보십시오.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대신 저희가요……

○**이양수 위원** 원상회복 방안 마련해 보시고.

지금 계속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드리는 게 축협 복수조합원 문제도 좀 있고, 지금 중앙회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 문제랑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지시지요.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예,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이만희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중앙회장님한테 오전 질의에 최근 5년간 농협 금융지주 계열사들, 제가 제시했던 내용이 특별성과급 지급 현황을 연도별로 제시를 드렸고요. 이 특별성과급 말고 고정성과급 지급 현황을 연도별로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까지 답이 없으십니다.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어기구 농협 측 잘 들으셨지요?

부회장님, 이만희 위원님 요구하시는 자료 즉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지금 1차적으로 위원님들 질의가 모두 끝났는데요. 저도 여기 이렇게 앉아서 있어 보니까 좀 답답한 면도 있고 우리 많은 농민들께서 또 조합장님들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과연 우리 농민들이 농협에 대한 기대감, 농촌에 대한 기대감, 농촌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할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우려에서 저도 몇 마디 중앙 회장님께 당부말씀 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회장님, 정말 중책을 맡으셨어요, 그렇지요? 207만 농민들을 대표하시는 중앙회장님으로 취임하여 가지고 오늘 첫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요.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농협의 새로운 수장으로서 정말 농민을 위한 농협, 농민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농협, 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농협 그래서 좀 농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중앙회장님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도 보고 그러니까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 민국 농협을 만들겠다’ 이런 깃발을 들고 지금 전국 지방 현장을 100회 방문하셨어요. 그렇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위원장 어기구 지금 죽 밑에부터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조합장님들과 간담회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회 정도 다니면서 조합장님들한테 많은 건의사항도 있을 테고 그동안 농업, 농촌에서 잔뼈가 굵으신 중앙회장님께서 보기에 지금 한국 농촌에 희망과 꿈을 드리려면 어떤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 농민들의 정말 근심걱정거리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좀 알아야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존경하는 우리 어기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촌에 절박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에 있는 우리 1111개의 조합장님 그리고 제가 방문했던 농어민 또 제가 근무했던 지역의 농어민들 다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경제가 살아야 농촌소멸을 방지할 수도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지역농협 경제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두에 인사말씀 드릴 때 농협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농민의 눈높이에는 못 맞추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13조 원의 무이자 자금을 7조 원 정도 해서 20조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농협 경제사업…… 지역농협에서 경제사업을 회피하는 이유는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회도 지금 많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농협 경제사업을 활성화시켜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업소득 3000만 원도 저는 거기에 연연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1114만 원의 농업소득을 어떻게 3000만 원까지 올릴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목표를 좀 높게 잡아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으로 농업소득을 올려야 우리 농촌이 소멸되는 부분을 최소한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지역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좀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소득 3000만 원 시대 얼마나 꿈같은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우리 농가부채가 얼마나 아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사상 최대지요, 그렇지요? 4000만 원이 넘었잖아요.

지금 시골에서는, 농민들께서는 농사를 짓자니 빚더미에 쌓여 죽고 농사를 안 짓자니 죽어 죽게 생겼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리고 지금 농촌 인구가요 조합원, 이게 다 농협의 조합원들이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우리 농가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한 400만 됐지요? 작년에 우리 농가인구가 얼마나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한 220만 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렇습니다. 200만대로 떨어진 거예요. 반토막이 난 거예요, 반토막. 농업·농촌에 소득이 없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안 들어가고 그야말로 농촌 폐허화가 돼서 농협에 조합원들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 농협 자체도 이제 설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은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소득,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플랜을 잘 짜서 임기 동안 따박따박 실천해 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농촌의 쌀값, 솟값 그다음에 기후위기 또 인력부족 이런 것들이 지금 농촌의 가장 현안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 못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우리 농민들이 오늘 다 TV, 유튜브로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 쌀가격이 가장 현안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역에 가 보면 빨리 즉시 15만t 수매해라,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런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이제 한 두 달 있으면 햅쌀이 나오잖아요. 햅벼가 나오는데 그러면 올해 수확기 쌀값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가을 수확기 쌀값은 생산량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가격을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아니, 두 달 남았는데 농협이…… 쌀값이 농민값 아니겠습니까. 정부 한테 강력하게 얘기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농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것

아니겠어요.

올해 이것 수매 가능하겠습니까? 작년 정도 200만t 수매 가능하겠어요?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하여튼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창고 여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조합에.

○**위원장 어기구** 그 계획을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200만t 이상으로 벼 수매를 할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가격은 지금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수매량은 농가 희망물량을 전액 수매할 계획이고요. 창고 여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별도로 조합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지금 가격도 2022년 악몽이 재현될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좀 있으면 정기국회, 국감 됩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정확히 또 물어볼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지요?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여기에 대한 대책을 농협이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님, 지금 솟값 어떻게 할 겁니까?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올해도 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좋지 않으면 대책이 뭡니까, 그러면?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지금 일단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진작 할인행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암소 감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위 저능력우를 저희가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비육 전환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소비촉진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한우농가들이 지금 어떻게 정말 울분을 토하는지 아시지요? 현장 얘기 다 잘 듣고 계시지요?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예.

○**위원장 어기구**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다음에 수해대책, 한 말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손해보험……

○**이양수 위원** 또 해? 8분 됐어요, 8분. 위원장 되시더니 너무하시네.

○**위원장 어기구** 여기 앉아 있으니 제가 하도 답답해서……

농협손해보험의 서국동 대표이사님, 어저께 제가 부여 수해 현장에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있으면서 농민들 얘기를 죽 들어 봤는데 수해에 대해서 손해보험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저희들이 지금 현재 피해지역의 한 95%까지는 현장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7월 한 달 이내에 보험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현장조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제가 현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엊그저께 현장을 갔는데 그 조사 나오신 분이 국회의원인 제가 물어보는데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막 다 가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인, 농민들이 물어보거나 질의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국회의원이 물어보는 데도 쌩까고 가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것?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하고 싸울 수는 없고 해서 오늘 이따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그 조사하는 것도 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농민한테 설명을. 가뜩이나 재해 입어 가지고 열받아 있는데 와 가지고 그냥 자기가 무슨 큰 끗발인 양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어기구** 하여튼 보험에서 어제 가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3일 안에 그 피해를 전부 다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맞지요?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재해보험의 보상 수준이 너무 낮다,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요?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위원장 어기구** 재해보험의 수익 창출에만 눈이 멀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기후재난 시대를 극복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를 농식품부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답답한 게 많아서 너무 오래 물어봐 가지고 죄송하고요.

이제 다음 2차 질의를 바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5분.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질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신항 7부두 있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이병진 위원** 세계 아홉 번째로 완전자동화 부두를 이룩했어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까, 갖지 말아야 됩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가져야 됩니다.

○**이병진 위원** 가져야 돼요. 1조 140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또 탄소중립 항만이라고 선전하셨고 경남지역 제조기업들이 장비를 제작·설치해서 국산 기술의 백미를 이루었다, 완전자동화의 실현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지난 10월에는 또 사장님께서 한 3400억이 투입되었다, 전량이 국산 장비고 우리 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셨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이병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항을 비추는 CCTV 있지 않습니까? 7103대가 있는데 721대가 어디 나라 겁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중국산입니다.

○이병진 위원 중국산이지요?

이게 TTA 미인증인 것 알고 계시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이병진 위원 이 CCTV가 중국 하이크비전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CCTV인데 얼마 전에 강남 성형외과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진료실하고 탈의실 비춘 CCTV 그 회사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 CCTV 쓰게 합니까, 말게 합니까? 쓰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난해부터 보안구역에는 인증받은 것만 쓰게 되어 있는데 왜 미인증을 썼어요? 왜 미인증 CCTV, 중국산을 갖다 썼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이 설치를 할 때는 22년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설치가 된 사안입니다.

○이병진 위원 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올해 1월 달에 국정원에서 지적해서 자체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지요. 어떤 대안 갖고 있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특별히 이 장비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보안 강화를 위해서……

○이병진 위원 아니, 그 장비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신행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에서도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그래서 이런……

○이병진 위원 장비 문제가 있으니까 대안을 마련하라고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기술의 유무를 떠나서. 그 대안을 마련했어요, 안 했어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대안을 마련했고 특히 여기……

○이병진 위원 언제까지 교체할 겁니까, 이것?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교체는 지금 기존에 설치된 장비는 전량을 교체하려면 한 30억 정도가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병진 위원 순차적으로라도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단 문제가 됐으니까, 그렇지요?

분명한 것은 이 회사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킹이 될지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저희는 기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빨리 대안을 갖고 저희 의원실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성환 본부장님, 어디 계세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위성환 예.

○이병진 위원 가축방역, 수의직 방역관이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위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지금 가축들이 폭염으로 폐사하고 폭우로 폐사하고 전염병으로 뭐 한다? 폐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위성환** 예.

○**이병진 위원** 그런데 지금 감염병의 75%는 인수공통감염병이라는 게 많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위성환** 예.

○**이병진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1953명 가운데 823명, 지금 정원의 한 42%밖에 채우지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수의직 방역관이 이렇게 지금 정원의 42%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위성환** 예.

○**이병진 위원** 지금 전국에서 가축이 가장 많은 전북 같은 경우에도 205명 중에서 95명뿐이고 경기도도 276명 중에서 125명밖에 방역관이 없어요. 참 이게 지금…… 동물검역관 문제도 심각해요. 301명 중에 55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올해는 유럽연합 같은 데에 우리가 삼계탕을 수출하는데 동물검역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누구나 막 대체복무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수의직 공무원 부족 문제 이것 수의대로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강호동 회장님, 지금 쌀가격 관련해 가지고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7월 달에 우리 산지 쌀값 내용 알고 계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이만희 위원** 지금 한 18만 3900원 상당이니까 우리 수확기 쌀값 평균에 비해서 한 9% 정도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지 쌀값의 회복이라든지 이제 수확기 곧 다가오는데 새로운 쌀값 관련해 가지고 농협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재고 물량을 소진해야 되겠다 하는 정부의 요구가 결코 부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이만희 위원**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농협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농협이라는 것이 또 농정이라는 것이 정부에 농림부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농협에 농협금융자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많은 혜택들을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800조 가지고 있잖아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이만희 위원** 그것 다른 사람이 못 해서 그렇게 합니까?

농협이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정부와 함께 큰 역할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그래서 저희 농협에서도 한 1000억 예산을 들여서……

○**이만희 위원** 쌀 10만t 격리하는 데 얼마 들어요? 예산으로 따지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한 2500억 정도 드는…… 3000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2500억가량 듭니다. 지금 1000억 정도 예상을 하잖아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이만희 위원 더 한다고 그러는데, 더 좀 적극적으로, 정말 농민들을 위한다면 제대로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때 민당정 회의에, 거기에 경제대표도 참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이만희 위원 또 한 가지는, RPC 경영 적자도 이제 많이 회복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RPC도 지금 계속 적자를 가지고 있는 농협이 많습니다.

○이만희 위원 하여튼 그 적자 부분이 상당 부분 해가 갈수록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한번 챙겨 보도록 하십시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이만희 위원 그리고 지역의 실정은 지역 단위농협들이 가장 잘 압니다. 실제로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고 타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역할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역할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대표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이만희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 현재 농촌의 여러 농민들을 옥죄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이 양곡법 이것이 아니라 저는 농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1년도에 만들어 놓은.

아니, 투기는 투기꾼들이 LH 관계자들인데 그 피해는 나중에 농민들이 다 받고 있어요. 농업…… 농지 거래량이 절반, 반토막 나오고 가격도 무려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위농협의 연체율이 시중은행에 비해서 9배, 10배 높은 것이 당연한 거지요.

왜? 지금 단위농협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농지 담보로 대출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렇잖아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이만희 위원 아마 여러 가지 간담회 하시면서 지역에서 농지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농협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의 피폐한 삶’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삶을 제대로 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곡법이 정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부연해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농지법 관련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꼭 좀 마음을 모으셔서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농민이,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농업·농촌이 어려운데 농지법,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LH 사태 때 개정된 법으로 인해서 많은 농지 가격이 하락이 되고 매매도 안되고 또 담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개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회장님,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민들은 우리 농협중앙회장을 농민의 대통령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만큼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바도 많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부에 농림부가 있지만 그 반대의 양축에는 농협이라는 큰 조직이 있어서 이 2개 축이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정말 보여주셔야 되고 두 기관 사이에 정말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조하고 한마음이라는 뜻으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중앙회장님, 농지법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농지법에 대한 의견서를 이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제가…… 저는 농신보 기금 운용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보니까 여기 담당이 우리 전무이사가 기금 관리자로 되어 있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전무이사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나오시는 동안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위원장 어기구 예, 하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전무이사입니다.

○임미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농신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큅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예.

○임미애 위원 그동안 보통 사람이 대신 보증을 서면서 함께 쫄딱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농신보가 그 역할을 좀 하면서……

지금 보니까 그동안 한 175조가량의 보증을 섰고 지금 현재 보증액이 한 18조가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원래 보증이라는 게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예.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례해서 보증을 서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적정 운용배수를 12.5배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운용배수는

20배로 두고 있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법정 운용배수를 넘어서게 되면 결국은 보증 업무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신규 보증이 중단됩니다.

○임미애 위원 중단되는 것이지요. 현재 지금 운용배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17.7배입니다.

○임미애 위원 굉장히 높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예.

○임미애 위원 (영상자료를 보면)

제가 이 정도이면…… 이게 지금 24년 상반기 기준이니까, 5월 기준이니까 2008년 이후에 역대 최고치이고 아마 연말 가면 이게 더 높아질 텐데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그래서 정부에 출연금을……

○임미애 위원 이렇게 악화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과거에 저희가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보증이 신규로 많이 늘지 않아 가지고요 2009년……

○임미애 위원 그러면 잠깐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예.

○임미애 위원 제가 보니까 23년도에 출연금이 없었어요. 그리고 24년도 5월 달에 겨우 해서 한 300억이 들어와 있는데 혹시 이렇게 정부 출연금이 갑자기 중지됨으로 해서 이 기금의 상황이 좀 나빠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아니, 그 내용은 아니고요.

○임미애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과거 2009년부터 16년 사이에 저희가 기금운용 잔액 1조 6000억을 정부에 반납을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농신보에서 대책을 내세운 게 뭐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 과정에도 나왔는데요. 농업법인 간접할 때 보증 잔액 중에 10% 해지하겠다. 이게 하나 대안으로 나왔고 또 하나는 신규 보증 규모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규 보증 규모를 감축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게 되냐 하면……

집착하시지 않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예, 맞습니다. 농민들하고 소상공인 대상으로 합니다.

○임미애 위원 뿐만 아니지요. 대체로 이렇게 되면 청년농, 귀농, 스마트팜, 신규 보증이 필요한 농민 대출이 지금 보증을 못 받게 된 거예요. 농신보의 도움을 못 받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존경하는 위원님, 잠깐만 말씀 올리면요 감사원의 감사 지적도 있었고요. 20배까지 가서 신규 보증이 중단되지 않을 자구노력으로 하나의 안으로서 저희가 검토를 한 거고요. 내년 6월까지 지켜보고서 정부 예산, 출연금이 들어오면 그 제도는 운영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내년 6월에 출연금이 들어온다는 그게 확답을 받으셨나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아니요, 내년도 6월까지 그 제도를 유예를 허습니다. 시행을 아직 안 했고요. 그런데 정부 출연금이 내년 1월에 들어오면 그 제도는 운용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거 기금…… 출연금을 받기 위해, 확보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예, 지금 기재부하고 농식품부에 저희 전 조직이……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에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었잖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예.

○임미애 위원 그래서 중기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가 급등하니까 당시에 산자위 국회의원, 여야 위원들하고 중기부가 협력해서요 금융위원회의 강력한 반대를 극복하고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을 법적으로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은 적어도 해야 기금을 지키실 수 있는 겁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분이 지금 이 상태를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출연금을 주겠거니 하고 기다리신다면 결국 피해는 농가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지금 농식품부에 충분히 협의가 돼서 농식품부에서 기재부에 예산 신청 3500억 원이 올라가 있고요. 기재부에서는 1차로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미애 위원 3000억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3500억을 농식품부에서 올렸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어기구 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에 다각도로 협의하고 지금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신규 농업법인 개신할 때 보증잔액 10% 해제하면 그 돈 받아 가지고 결국은 농민들 돈 받아서 농민들 신규 대출하는 데 쓰겠다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예, 그 제도는 다시……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신보 기금 운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안병우 대표님!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예.

○박덕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의 말씀 있었는데요. 지금 도축 수수료 인상을 했잖아요?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예.

○박덕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농업 생산액이 제일 큰 게 뭐지요?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박덕흠 위원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가 16.7%, 미곡이 13.6% 또 한우가 10.9%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예.

○박덕흠 위원 그런데 지금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도축 수수료를 올렸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예.

○박덕흠 위원 그리고 우리.....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잠깐 말씀 좀 올려도 될까요?

○박덕흠 위원 조금 이따 끝나고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간 드릴게요.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예.

○박덕흠 위원 서국동 대표님!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박덕흠 위원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정말 직원들 교육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마침 위원장님께서 말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어떻게 됐든 제가 피해 현장에 가서 현황을 보려고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묻는 데 대답도 안 하면서 이렇게 가고 그 농민들도..... 농민이 있었는데 거기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불친절하다고.

가뜩이나 열이 받아 계시는데, 그 피해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거기서 느낀 것은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박덕흠 위원 비닐하우스가 돼 있는데 외쪽은 되는데, 바깥쪽은, 안에는 풍수해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태풍이나 이런 재해 위험이 있을까 봐 아주 튼튼하게 지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안쪽에 조금 이렇게 손실된 게 있는데 거기는 보험이 안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비닐하우스 치면 안이든 외부든 손실이 나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그 보험을 만들 때 안의 농작물까지 같이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해야 돼. 왜 그러냐? 이거 외부보험 들고 또 내부보험 들고 또 농작물보험 들고, 이렇게 보험을 세 가지씩 안 들어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통으로 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것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제가 작년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이 부분이…… 지금 탄저병 있잖아요? 탄저병.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박덕흠 위원 탄저병이 지금 고추는 되고 있잖아요?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박덕흠 위원 그런데 지금 고추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다 탄저병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박덕흠 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지금 농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해야 돼, 안 해야 돼? 협의만 해서는 안 되잖아. 다 되게끔 하고 저희들도 농식품부에 얘기를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사과, 포도, 복숭아 이것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탄저병이 사실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심각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알고 있어요?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박덕흠 위원 현장 어디 가 보셨어요?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박덕흠 위원 어느 현장 가 보셨어요?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경북, 충북 다 저희들이 가 보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충북 어디 가 보셨어요?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여러 군데 가 봤지요.

○박덕흠 위원 지금 안 가 보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 어디 가 보셨어요?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박덕흠 위원** 충북 어디 가셨냐고, 그러니까.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많이 갔습니다. 괴산도 가고 다……

○**박덕흠 위원** 괴산 어디 가셨었어요? 괴산 어디에요, 괴산?

지금 이게 미국이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는 경작이 가능한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는 병충해를 보장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겠지요?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농식품부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예, 농민들을 위해서…… 결국은 농업인이 있으니까 농촌이 있고 농촌이 있으니까 농협이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아시고 대표이사님 또 직원 교육, 농민들을 위해서 보험이 어떤 것을 더 확대해야 되나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위원님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 농업재해보험은 정말 제대로 된 피해 구제책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충북 진천·증평·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중앙회장님, 딜레마인 것 같아요. 지역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목표는 참 좋은데 경제사업이 활성화되면 혹여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농민들에게 제대로 환원되느냐, 또 너무 농협만의 수익사업 위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일부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적자가 누적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경영상 무능한 것 아니냐 이런 질책이 있을 수도 있고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일단 지역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게 보니까 농협에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약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제초제 테라도골드 500cc 이게 농단협에서 공동 구매하니까 1만 원에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농협은 1만 6500원에 500cc요. 그다음에 살충제 에이팜 100㎖가 9200원에 공동구매가 가능한데 똑같은 100㎖인데 1만 3000원 농협이 판매한다, 농협 유통 시스템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똑같은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협에서 하나로마트 가격이 모든 것이 비싸다, 그래서 하나로마트 옆에 대형마트 차리면 무조건 성공한다. 왜 그러냐? 이게 하나로마트에서 개별 빨주처를 잡지 못하게 제도로 막아 놓기 때문이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접수가 됐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조금 여쭈어볼게요. 농협 농기계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경영 현황을 보니까 최근 5년간 1조 934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순수익이 적자예요, 1257억 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매출액도 그렇고 수리 건수도 그렇고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가장

최근에 보은군 삼승농협 농기계수리센터 결국 문 닫았다는 기사도 나왔고요. 전국에 582개소의 농기계센터가 있는데 여기 근무하는 정규직원이 1083명, 평균 1.8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북 같은 경우가 제일 적습니다. 1.2명이에요. 그러면 1명이 근무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만성 적자, 구인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이것을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통합수리센터를 하는 경우가 충남 청양농협 같은 경우인데 통합하면 또 농민이 불편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퇴양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희 방으로 자료나 아니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리고 중앙회장님, 퇴비제조장 배출가스 저감시설 설치 아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임호선 위원 아직 세세하게 파악은 다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4년간 이 법 개정 이후에 유예가 돼 가지고 금년 말까지 사실은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된 곳이 너무나 많아요. 설치된 곳이 63곳 중에 16곳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설치 비용이 환경부에서는 6억에서 12억까지 추산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 지원은 최대 3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신청한 농협 공동퇴비제조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퇴비제조장도 연간 1200만 원 적자입니다. 전국의 63개 퇴비제조장의 영업이익이 적자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뜻이고 농민들이 사실 이걸 이용하기 때문에 농민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정작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적자가 계속 누적된다면 이 또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존경하는 중앙회장님께서 지역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 퇴비제조장 운영이 가능할지……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6월 달에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관계 기관이 개선 방안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설치 신고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4년 동안 이미 유예를 했어요. 그러니까 추가 유예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또한 여러 대안 중의 하나를 놓고 비난을 들더라도, 저감시설 지금 설치된 것도 기준 하나도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 실태 한번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저는 여수광양항만공사 박성현 사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좀……

○위원장 어기구 마이크 주세요.

○주철현 위원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역할이 올해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스마트 컨테이너 부두 건설, 국내 최대 수출입항만 육성, 해상환적 허브항만 조성 등 경쟁력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

용과 관련돼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실시하셔야 되고 남해안 국제해양레저관광복합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역할을 하셔야 되고 또 11월에 제1회 여수국제해양관광포럼 성공 개최 등 지금 산적한 현안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되어서 사장님이 워낙 유능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좀 챙겨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각오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저는 여수세계박람회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우리나라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20억 원의 돈을 투입해서 사후 활용 마스터플랜을 지금 착수를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고자 합니다.

단지 저희들 결림돌이 그동안 정부 선투자금액 3658억 원 상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우리 공사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 지역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사장님, 우선 순서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마스터플랜 용역은 해수부, 전남도, 여수시, 시민 모두가 주목하는 정말로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여수항 종합발전 연구용역도 할 때 보니까 지역 사회의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수렴이 무지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분들도 좀 참여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그것 하시렵니까?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지금 박람회장의 정부 선투자금 3658억 반납과 관련되어서는 원래 작년, 재작년 범이 개정돼서 인수 작업할 때는 ‘그것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걸 재투자할 수도 있다’ 기재부 공공국에서 이렇게까지 나왔었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예산실에서 이것 같아야 된다고 슬슬 압박이 들어오는데 너무 좀 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사회에서 오늘 시민들이 올라와서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선투자금을 재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현재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재투자해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활성화하는 데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재투자가 어렵더라도 일단 마스터플랜 용역이 올해하고 내년에 실시가 되니까 마스터플랜 용역에 따라서 기본 활용계획이 확정된 그다음에 상환 문제를 논의하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예, 어제 그렇지 않아도 기재부의 예산실에 가서 강력하게 저희들 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주철현 위원 같이 좀 힘을 모아서 이 부분을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수박람회장에 최신 전시컨벤션센터,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짓는 게 중요한데 해수부가 주관하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사업에서 이것을 국제해양레저관광복합센터로 바꿔서 짓자 이렇게 지금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장님 동의하시는 거지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예.

○주철현 위원 같이 좀 용역을 해서 적극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리고 부산항은 국제항만콘퍼런스를 11년째 하고 있고 인천항은 4년째

포럼을 하고 있는데, 여수국제해양관광포럼도 이제 올해부터 시작인데 책임지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농협중앙회장님께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선 단위조합장 오래 하셨으니까, 지역조합이 유지될 수 있는 최소 조합원 수가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1000명입니다.

○주철현 위원 1000명이지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농협이나 축협 중에 이게 1000명이 안 되는 조합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지역농협 중에서 얼마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한 100여 개 이상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예, 농협은 916곳 중에서 4.1%인 38곳이 1000명 미만이고 축협은 116곳 중에서 57%인 66곳이 지금 1000명 미만이거든요. 이것은 인가를 취소해도 아무런 말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법을 좀 고쳐서 500명 이하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좀……

○주철현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현실은 조합원이 많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 축협과 관련되어서는 축산 환경이 위낙 나빠지고 지역이 고령화되고 이렇게 때문에 1000명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계속 주장은 하고 있는데, 고집을 하고 있는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저희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500명 이하로 좀 해 주라고. 중앙회도 힘을 좀 모아서 이걸 법을 개정해서 저 불안한 상태에 있는 1000명 미만의 단위조합들이 좀 안정되게 경영할 수 있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좀 모아 가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주철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한 번도 안 받은 기관장분들 계시는데 특히 비상임으로 있는 분들은 좀 가셔도 안 됩니까? 나중에 여야 간사님들께서 보충질의 끝나고 하든지……

○위원장 어기구 예, 여야 간사님들 보충질의 끝나고 휴식시간 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장님, 질문 처음 받아 보시지요?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박병홍 예, 맞습니다.

○조경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직이 생각보다 큰 조직인데요. 445명이지요?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박병홍 예, 맞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런데 제가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약간 비판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정부에서 2019년부터 선제적 한우 수급 조절에 대해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것 아십니까?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박병홍 예,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러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소리를 계속, 한우를 계속 키우면 이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경고음을 날렸습니까?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박병홍 저희들이 수급 관련해서는 수급 동향이라든지 또 원인 분석 이런 걸 통해서 농식품부에 제공을 하고 농식품부에서 여러 가지 수급 대책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첫 번째……

○조경태 위원 아니, 지금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주요 설립 목적 중의 하나가 여기에 보면 유통 업무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박병홍 예,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우가 너무 많이 생산이 되면 당연히 가격이 다운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미 농림부에서는 축산가구에다가 경고음을 2019년부터 계속 했어요.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박병홍 예, 맞습니다.

○조경태 위원 맞지요?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박병홍 예.

○조경태 위원 그러면 이것 누구 책임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계속 홍보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2019년도에 했고요. 이게 보니까 네 차례 했어요. 2020년 다섯 차례, 2021년부터는 네 차례씩 계속 경고를 했는데도 이 농가들이 안 따라 줬어요.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박병홍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수급 관련 상황들을 농식품부에 제공을 하고 농식품부에서 수급 대책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렇지요?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박병홍 예.

○조경태 위원 그리고 보면 50마리 이하의, 미만의 농가들은 그것을 따라와서 사육 수를 줄입니다. 그런데 50마리 이상 되는 그 농가들은, 축산업계는 계속 늘려요. 이 부분은 진짜 책임 소재를 좀 따져 봐야 된다. 정부가 그동안 노력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꾸준히 노력을 해 왔던 부분이다는 말이지요.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박병홍 예.

○조경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정말 대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축산농가에다가 그런 경고를 했는지 했으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지금 안 해도 되고 나중에 해 주세요.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박병홍 예, 알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한우의 유통구조를 보시면요.

한번 PPT 띄워 보겠습니다.

아주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한우가 보면 돼지나 닭이나 오리나 달걀보다, 이게 유통마진입니까? 이윤이 너무도 높아요, 이게.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박병홍** 예.

○**조경태 위원** 22.6%잖아요. 결국 농가에서, 축산농가가 가져가야 할 수입을 중간 마진이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 진짜 제도개선해야 된다고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박병홍**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돼지하고 한우를 비교해 보면 좀 특성이 다른 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우의 경우에는 부위가 아주 세분화가 되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유통비용이 좀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윤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두 가지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의 선호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것은 가격을 좀 더 부가가치 차원에서 높게 받는 그런 경향이 있고……

○**조경태 위원** 아니,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고 분통 터지는 게 뭐냐 하면요, 한우 축산농가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사 먹는 소비자는 똑같잖아요?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박병홍** 예, 최근에는 소비자 가격도 좀 떨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조경태 위원** 혹시 식당 가 보셨어요, 한우식당?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박병홍** 예, 식당은 아무래도 또 거기의, 식당 운영에 따른 그런 비용까지도 추가되다 보니까 축산물 가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경태 위원** 아니, 원자재·원재료값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한테 혜택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박병홍** 예, 맞습니다.

○**조경태 위원** 원장님께서는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분이잖아요.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박병홍** 예, 맞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가격이 떨어졌으면 그 떨어진 만큼 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요?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박병홍** 예, 맞습니다.

○**조경태 위원** 우리나라를 보면 한 번 올라가면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그 가격이.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박병홍** 예.

○**조경태 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박병홍** 예.

○**조경태 위원** 원자재값은 떨어졌는데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다? 이것 모순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좀 더 분발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박병홍** 예.

○**조경태 위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우 유통구조를 좀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박병홍** 예.

○**조경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박병홍** 예,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쌀값 폭락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협중앙회가 10만t 격리와 관련해서 대책을 촉구하는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대책도 없고 입도 꾹 다물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했는데 오후 돼서는 답변을 좀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을 확인 차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곧 이제 수확기 물량이 나올 텐데 수확기 물량은 차질 없이 수매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전종덕 위원** 그 10만t 격리를 하는 데 약 2500억 정도 듣다. 그래서 이 부분도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10만t 격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소비 촉진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격리가 아니고요.

○**전종덕 위원** 또 지적을 하셨지만 소비 촉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시장에 물량이 풀리는 거고 쌀값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 없는 대책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전히 그 관련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소비 촉진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지금 저희들 소비 촉진 중에도 수출 물량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출 물류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할 부분이 있고 또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쌀값 하락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예, 그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10만t과 관련해서 그 전까지 못 하시겠으면 농림부에 우리는 못 한다라고 정확히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보니까, 오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10만t 격리를 소비 촉진 방식으로 하시겠다고 했지만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중앙회가 책임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하면 되겠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아니, 물량은 확정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종덕 위원** 물량 확정 안 했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소비 촉진에 역점을 두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전사적으로 하겠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다 이게 10만t이 격리 안 되면 이후에 대책은 있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저희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쌀 소비 부분은 일회성 경비를 가지고 어떤 땜빵식의 처방하기는 좀 어렵고요.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쌀값 때문에 정부나 농협이……

○**전종덕 위원** 일단 죄송합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 관계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전종덕 위원** 10만t에 해당되는 소비 촉진 계획 관련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저는 못 하면 농림부에 정확하게 못 한다는 입장 표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축협 생축장 있잖아요? 생축장이 원래 목적이 한우 번식사업 통해서 양질의 송아지를 생산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분양하는 게 목적이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전종덕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지금 보니까 실제로 축협 생축장이 한우 번식사업보다는 비육우 사육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번식우 비율은 5641두, 전체 물량의 24.5%였고요. 2011년도에는 6132두 해 가지고 23% 정도 수준이었고요. 2021년도에 마찬가지로 4634두로 번식우 사업을 진행해서 이것도 한 22% 수준입니다. 2015년부터 갈수록 번식우 비율이 떨어지고 있고 비육우 사업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농축협 생육장에서도 생산에 끼어들게 되면서 결국은 농민들하고 경쟁을 하는 구조가 돼 버린 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전종덕 위원** 지금 결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지요. 원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비육우 사육 중심의 사업을 철수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번식우 사업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의견 어떠신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이 부분은 제가, 축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축산경제대표가 잠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예, 그러시고요. 답변 누가 한번 해 보시지요.

오늘 답변 준비하시면서, 시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번식우 사업 추진실적 제가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진실적 자료하고 향후 번식우 사업 확대 계획을 자료로 좀 만들어서 저에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예, 말씀대로……

○**전종덕 위원** 설명하십시오.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예,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요.

지금 그 생축장 기능은 물론 당연히 번식우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수급 조절이나 또 가축시장 운영 과정에서 좀 불가피하게 생축장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들어났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좀 과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암소 개량, 한우뿌리농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생축장을 송아지 번식 어떤 기지로 육성하는 그런 방안을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관련 자료를 좀 주십시오.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호동 회장님, 농협의 전략작물 재배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23년도 정부의 전략작물 직불제 도입과 함께 농협이 전략작물 재배농가를 지원하는 쌀 적정생산 대책 참여 농가 지원사업 추진해 오고 있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문금주 위원** 제가 보니까 규모에 따라 농협이 지역농협에 무이자자금을 지원하고는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2023년에는 무이자자금으로 1107억 원 그리고 24년에는 무이자자금 15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자료 보시면, 2023년도 무이자자금으로 1107억 원을 지원했는데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실적은 따로 집계하거나 파악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24년부터는 실적을 취합하고 파악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목적이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한 쌀값 안정과 쌀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거였고 이 취지로 무이자자금 지원으로 발생한 이자 수익을 전략작물 재배농가에 환원해 주는 게 사업 목적으로 들었는데 맞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문금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이자 수익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파악을 하셔서 수익, 전략작물 재배농가에 수익금 환원계획을 수립해서 본 의원실에 보고도 해 주시고 앞으로 제대로 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문금주 위원** 그리고 서해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께서도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주셨는데 개선 요구사항들은 아까 다 알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지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서해동** 예.

○**문금주 위원** 그런데 입법조사처에서 20년에 발간자료에 따르면 농업 분야에 기상재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2010년에서 14년까지는 연 4종,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재해 발생 원인이 연 4종류, 네 종류였으나 최근에는 5~7종류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던 농작물재해보험도 가입 농가 수하고 농가당 평균 가입 금액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서해동** 예, 그렇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런데 다만 농가당 평균 지급액을 보면 5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지요.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오히려 21년과 22년에는 평균 지급 금액이 큰 폭으로 줄기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따져 보면 문제 개선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게 결론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선 자연재해가 우리 농어민의 잘못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서해동** 예.

○**문금주 위원** 그런데 마치 농어가가 잘못한 것처럼 지금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농민들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농어민들이. 이게 뭐 자동차보험도 아닌데 그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 다음에는 할증을 적용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관계부처, 그러니까 재해보험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약관을 통해서 법과 시행령, 관계부처 고시에서 보장하는 재해마저 보상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 달라는 부탁인데요. 약관을 통해서 보상 범위를 더욱 축소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법과 시행령에서는 양식 수산물의 질병과 병해충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약관에서는……

마무리할게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약관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서해동** 예, 언론지상을 통해서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문금주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보험료 할증제도도 좀 다시 한번 봐 주시고요. 보상 범위 확대 그리고 기준가격 현실화 등 재해보험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서 같이 보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서해동** 예, 농식품부하고 또 보험사업자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농협중앙회의 교육지원 사업은 회장님 말고 누가 담당하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부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부회장님, 잠깐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예.

○**김선교 위원** 업무현황을 제가 보니까 농업인 행복버스라고 있다가 이제 농촌 왕진버스로 바뀌었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예, 왕진버스.

○**김선교 위원** 이거는 어디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의료시설이 취약한 그런 읍면 단위 중심으로 의료지원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올해 300회가 목표입니다.

○**김선교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전체 도는 거예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전국적으로 읍면 단위에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김선교 위원** 선정돼서 버스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예, 의료버스가 가서, 각종 내과·외과·치과 모든 의료진이 가서……

○**김선교 위원** 아, 그래요? 의료진이 가서 하는 겁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예.

○**김선교 위원** 그리고 재해지원 사업이 한 8000억 예산이 셨는데 이번에 집중호우 내려서 특별재난지역으로도 선포가 되고 이런 데는 얼마나 지원되는 겁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저희가 상반기에 냉해하고 일조량 부족으로 2000억을 기 집행했고요. 이번 수해지역에 2000억을 배정해서 지금 피해금액이 산출되는 대로 즉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리고 중앙회장님, 현장 행보를 하시면서 특히 농산물의 유통 구조 개선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 농촌 인력 공급 및 영농지원 확대를 강조했는데 유통 구조가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지금 저희 농협에 농협 유통에 따른 문제점이 많습니다. 적자가 많이 실현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저희와 같은 경쟁을 가진 대형 유통업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 등등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유통업체하고 경쟁은 할 수 없습니다, 여건상.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농협에 약 한 400여 개의 APC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게 한 27개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정형화하고 투자를 해서 우리 농협에 맞는 안정성, 신선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경쟁을 가져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가,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산지 가격하고 실제적으로 소비자가격하고 차이가, 갭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것이 물가 안정이고 뭐고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유통 구조 부분은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매번 언급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시장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은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협은 여러 가지 이런 구조 부분을 단계를 좀 최소화해서 하여튼 소비자도 보호하고 산지 생산자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단군 아래 최대 항만 재개발사업으로 불리는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이 비리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사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지금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혀졌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아직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이 문제를……

○**김선교 위원** 아니요, 특급호텔 짓겠다고 사업 승인받고 사업계획 바꿔 수익성이 좋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건축에 나섰다는 것 아닙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저희들이 당초에 분양할 당시에는 호텔이나 아니면 생숙이나 이렇게 특정화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제안자가 당시에 호텔을, 저희들은 생숙이라 생각을 했는데 또 호텔……

○**김선교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민간사업자 특혜액이 얼마나 추산됩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아직은 확실하게……

○**김선교 위원** 한 100억 정도 되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그거는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들에 대해서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한 건인데 맞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저희들이 재심의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선교 위원** 지금 징계 절차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아직은 감사원에서 재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선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결론이 나오면 거기 처분에 따라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서면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서해동 원장님,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의 운용·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서해동**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최근 5년간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출자 자펀드의 지역별 목적투자기업 소재지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서해동**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문대림 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서해동** 지방의 경우가 한 3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습니다.

서울 소재 기업이 44.3%, 경기 소재 기업이 19.3%, 인천 소재 기업이 3.8%, 수도권 기업이 67.4%입니다.

그리니까 전국 농업법인 중 서울이 1.3%, 경기도가 15.4%, 인천이 1.2%, 전국이 17.9%에 불과한데 서울·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이거지요. 과다한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서해동** 저희도 그렇게 해서 지역활성화·지역특성화 펀드를 적

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농림수산식품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모태펀드 투자가 지방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서해동** 아무래도 투자는 1차 생산 농업이 더 집중적으로 되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가공·유통 또 소비자 쪽에 더 가까운 그런 업체 쪽으로 투자가 좀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문대림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지방 중심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농림수산식품산업 아닙니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서해동** 예.

○**문대림 위원** 관련해서 지방을 지켜 내는 일은 저는 목적의식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한번 좀 수립해 주시고요. 저희 의원실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서해동** 예,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강호동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5월 발표한 유통 구조 개선 대책에서 물류기기 이용 시장 독과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문대림 위원** 농산물 출하 시 농업인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파레트 등 물류기구 사용 관련해서 특정 물류기기 회사가 공급량의 70%를 독점하고 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잘 모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미 정리된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은 높은 물류 비용을 강제 당하고 있고 이러한 농업인 물류 비용 증가는 결국 소비자에게도 일부 전가되어 사회적 편익, 소비자 후생 저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으로 물류기기 독점에 따라 가지고 네 가지 폐해를 정리를 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 5월 달에 발표한 유통 구조 개선 대책에서. 그렇게 해서 그 유통 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독과점 구조 개선을 천명하고 농협경제지주의 물류기기 이용시장 적극 참여 노력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회장님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경제대표가……

○**문대림 위원** 농업경제대표 말씀 주시지요.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현재 농식품부 용역이 거의 끝나 가지고 중간보고는 받았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5월에 역할 분담을 한 이후에 농협경제지주 입장에서 추진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안 한 겁니까?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농식품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같이……

○**문대림 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지요?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나오는 대로 구체적 방안, 실현 의지를 담은 계획을 본 의원실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예, 잘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마사회 정기환 회장님, 당면한 현안은 아닙니다마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마사회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문대림 위원** 전북, 경남, 제주가 모두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주도로 가야지요.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마사회, 제주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편파적인 발언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어기구** 그래요? 시간을 잘 지키셔 가지고, 시간을.

○**이만희 위원** ‘마사회 제주도행 잘 검토해 봐라’ 그런 발언들은 취소해 주세요.

○**위원장 어기구** 그래요? 시간을 잘 지켜 주셔 가지고.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여의도가 우리 농해수위원회만 같으면 좋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또 박덕흠 위원님 말씀을 통해서 저보다도 더 시원하게 이렇게 주장을 해 주신 것 보니까 흐뭇했습니다.

회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지만 오늘 회의석상에서 나름 발언하는 그런 자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신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200만 농민들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고 대신할 수도 있다라는, 1000여 명 조합장을 대변한다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수장으로서 1차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목소리를 좀 더 이렇게 크게, 넓게, 좀 높여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 관련해서 그 운용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고 또 부실하기도 하고 방만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까지는 다 이렇게 숙지를 아직 못 하셨을 텐데.

자료화면 1번 또 2번도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이런 내용 아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서삼석 위원** 잘 모르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서삼석 위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동산 자산을 각 계열사에 맡겨 놓지 말고 회장이 취합을 해서 총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내실도 기하고 합리화해서 경영에 보탬이 되도록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이득들을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농어촌 조합이나 또 그런

조합의 상생협력 그런 사업자금으로 쓸 수 있게끔 하고.

또 조합원 대학생 자녀들이나 농어촌 출신 그다음에 수도권 취업 자녀들을 위한, 예를 들면 숙소 임대사업이랄지 이런 데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권유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리겠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임대수입에만, 그것도 저가로 그런 별 생각 없이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거니까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다음에 군 급식 시장과 관련된 건데 자료 화면 3번입니다.

2021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비교가 많이 되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서삼석 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앙회장님의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노력하시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분발하여 가지 고 지금까지 70% 이상을 납품해 오고 있는 일선 회원조합들한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회장님의 특단의 노력, 대책들이 저는 결론적으로 필요하다, 동의하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동의합니다.

○서삼석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니까 동의하시는 거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군납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뭐 노력하시겠다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일단 신임 조합장께서 목소리만 크게 내시고 그 목소리가 농림부를 넘어서 용산에까지 퍼질 수 있도록 하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같이 머리띠 매고 열심히 합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서삼석 위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일선 회원조합원들 그리고 오늘 또 참 어려운 환경에서 조합을 헤쳐 나가고 계시는 회원조합장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중앙회장님의 의지, 각오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분들도 많은 의지도 되고 힘을 얻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일선 조합장님들, 조합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고맙습니다.

○서삼석 위원 목소리 내시기로 약속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서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질의시간이 시작한 지가 두 시간이 훌쩍 넘어 가지고요. 송옥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휴식을 잠시 했다가……

○송옥주 위원 아니……

○위원장 어기구 양해해 주시면……

○송옥주 위원 끊으려면 4시에 끊으셔야지.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송옥주 위원님 질의 마치고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농협중앙회장님 많이 힘드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팬찮습니다.

○송옥주 위원 주로 질문이 다 회장님께 가는 것 같아서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질의 때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군 급식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질문한 취지를 이해를 못 하시고 답변하셨어요. 저는 국방위원회에서도 활동도 하고 지금 농해수위에서 하는데 국방부는 또 나름대로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을 할 거라고서는 정책을 한 거였는데, 저는 사실은 그때 있을 때도 이게 농·축협의 의견을 받아서 이 부분들에 대한 수의계약을 계속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농협에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제를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구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드린 거예요. 어차피 이 부분들은 저희 국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회장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짧게 어떻게 자구노력을 하는지……

이 내용을 보니까 군납농협 규모화, 품목 확대, 사업 다변화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안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강구가 되고 있는지를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설명차. 그러니까 그것을 이 자리라고 생각하고 짧게라도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저입찰가격으로 국방부에서 하겠다 해서 저희 농협 입장에서는 기존대로 수의계약을 해 달라, 그래서 한 70% 유지를 해 주면……

○송옥주 위원 아니, 70% 유지는 그냥 주장하시는 부분이고 저희 농해수위 위원님들은 많은 부분에 동의하고 동조를 하는데 국방부에서 이 70%를 유지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하라고 전제조건으로다가 2021년에 요구한 부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2021년 10월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구노력을 마련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24년 7월이잖아요. 그 사이까지 무슨 노력을 농협에서 했는지를 간략하게라도 설명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구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송옥주 위원 그러면 여기 농협의 다른 분 그것 설명 되실 분 있으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우리 경제대표가 잠깐 설명을 좀……

○송옥주 위원 이것 말고도 질문할 게 두 개가 더 있는데.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자구노력 크게 세 가지 중에 군납농협 규

모화는 거점 농협을 육성해 가지고 각 급양대로 일괄 납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품목은 지역별로 접경지역에서는 생산 품목들이 적다 보니까 인근하고 연계해 가지고 납품 품목들도 지금 확대하면서 규모화를 하고 있고요. 사업 다변화는 주로 농산물 원물 공급에서 지금 현재 가공제품까지 군납으로 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국방부하고 지금 실무적인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주 위원**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 숫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잘 알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중앙회장님께 두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 수입 농산물을 여전히 판매하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원형의 수입 농산물은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몇 년 전보다는 수입 농산물 판매하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위상과 민족농협이라는 그 가치나 그런 부분들이 좀 훼손될까 걱정이 됩니다. 수입 농산물 판매 근절하는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역에 있는 조합장분들이나 농민분들을 보니까 스마트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정부사업의 스마트팜 농업은 대농 중심으로다가, 청년농 중심으로다가 지원을 한다 그런 불만이 좀 많으십니다. 그래서 3000평 이상의 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격조건이나 그런 부분도 제한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도시형이나 중소형 농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그런 말씀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안 그래도 어떤 조합장님께서 100평이나 300평의 토지를 갖고 하우스를 하는 분들도 스마트팜을 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이나 그런 것을 제안해 달라라고 저한테 요구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회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이게 딱 있네요, 그렇지요? 기설치된 하우스 농가에 보급형·실속형 스마트팜을 지원하고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정책을 펴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적절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할 것인지를 농민들이 보고 있다 생각하고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하나로마트 건과 두 가지를 답변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저희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는 수입 농산물 취급을 안 합니다. 지역농협에 수입 농산물을 바나나만 취급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취급하는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에 위낙 다문화가정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역의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잠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니까 다문화가정이, 위낙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의 하나로마트에 조그마한 외국 농산물을, 뭐 가공식품도 있고 판매장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잘하는 부분이다라고 격려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런 외국 농산물에 대한 부분도 무분별하게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역농협의 하나로마트는 여러 가지 고객들한테 편익을 도모하는 의미에서는 일정 부분 판매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농협중앙회 하나로유통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금처럼 계속해서 우리 농어민단체라든지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스마트팜 농업과 관련해서는 그냥 이렇게 설명하신 게 다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스마트팜 농업은 제가 추구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스마트팜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데에 가면 선진화된 데가 몇천억 또 몇백억 이렇게 스마트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협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전국에 지금 기설치된 하우스에…… 거기는 양액재배 형태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조그마한 농협에 보급형, 즉 실속형의 스마트팜 농업을 지원해서 비용이 최소 한 3000에서 5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에 있는 그런 하우스에 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좀 지원을 하면 농촌 일손 부족도 해결하고 또 그에 따른 농업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형 스마트팜, 실속형 스마트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농협에서 지원하나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정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시범을 계속하고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있고 하면 정부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 관련해서.

○**송옥주 위원** 예.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했다가 오후 4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어기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서천호 위원** 부산항만공사 내에도 또 그런 경우가 있지만 항만배후단지하고 경제자유구역이 겹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지요? 개발……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위원님, 이게 굉장히 저희들 참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경제자유구역은 산자부에서 담당을 하고 항만기본계획은 해수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사전에 양쪽 기관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면 시간이 단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천호 위원** 작년 5월에 제도 개선 과제로 국무조정실에서 협의를 한 내용이 있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서천호 위원 몇 가지 그 협의 내용들이 있는데 일일이 제가 거명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것으로…… 행정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국무조정실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산자부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도하고 협의를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문제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자체하고 계획 수립 시에 협의사항을 의무화한다든지……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지금은 어쨌든…… 법안도 지금 필요하다면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제도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천호 위원 예.

농협중앙회 회장님, 은행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회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하시지요, 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금년 3월에 농협 직원 업무상 배임사고 발생한 것 알고 계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서천호 위원 최근 6년간 농·축협, 농협은행에서 횡령사고 사건을 보니까 264건에 전체 횡령 규모가 한 5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회수율도 한 59% 정도에 불과한 그런 사안인데, 여지가 없는 겁니까? 자꾸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진짜 금융직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책임감 부족이라 그럴까, 여러 가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직원들한테 쉽게 말하면 농협에 대한 이념이라든지 정체성 이런 걸 확실하게 심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거기에 또 보면 어쨌든 계속 횡령사고가 반복이 되는데 과거에 피해가 많았던 상위 10개 횡령사고를 보니까 적발하는 데 평균 한 3년 5개월 걸리고 예전에 있었던 대전 진잠농협 같은 경우에는 7년 11개월 동안 이런 사안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확인이 안 되고 체크도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방·관리 프로세스에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농협중앙회·자회사 최근 5년간 명예퇴직자 850명 중에서 38명은 징계로 인해서 승진이 제한되어 있는데도 명퇴로 지금 수용을 했고 명퇴금까지 지급을 했는데 명퇴금이 무려 109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실 수는 없겠지만 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서천호 위원** 문제가 지난해에 국민권익위에서 승진임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에 명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는 이 권고에 따라서 농협에서 제도 보완이라든지 지침을 마련한 적이 전연 없어요. 권익위 권고를 무시를 하고 결국은 특별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는 대로 저희 의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만약 그런 부분이 없다면 제도 보완하는 방향에 대해서 농협 측의 의지를 담은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 마무리했습니까?

○**서천호 위원** 예.

○**위원장 어기구** 서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하기 전에 서국동 손해보험 대표님 이쪽으로 좀 나와 주세요.

농협손보에서 지금 농산물재해보험 또 농업수입안정보험 이것 수탁받아서 담당하고 있는 거지요?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맞습니다.

○**윤준병 위원** 이번 5월 20일 날 정부가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을 발표했었는데 이게 농협하고 사전협의나 내부검토가 진행된 적이 있나요?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사전협의나 내부검토라기보다는 정부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민·관·학 협의체에 저희들이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참여했는데 이 건 확대 발표 관련해서 준비해야 될 내용이나 보험 설계해야 될 내용이나 확대될 때 소요되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준비 상태가 있는데 그것 관련된 실무협의를 했냐고요.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보험적인 측면에서 보면……

○**윤준병 위원** 아니, 했냐고 안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는데 왜 안 주지요?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저희들이 보험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확량을 어떻게 조사하고 전체……

○**윤준병 위원** 아니,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농협의 의견을 그러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농협의 의견이 아니고 그때 협의를 할 때, 전면 발표를 하려면 사전에 어떤 내용으로 확대를 한다, 어떤 품목으로 확대를 한다, 품목이 확대될 때 소요되는 인력은 어떻게 늘어난다, 인력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아직 정부에서 그 최종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윤준병 위원** 그러면 전면 확대와 관련된 정부의 안이 없이 그냥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겁니까?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저희들하고……

○윤준병 위원 지금 농협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형태로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지요?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아직 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윤준병 위원 그냥 의지만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대답을 빨리 하세요. ‘예스, 노’로.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그 최종안을 저희들이……

○윤준병 위원 받지를 못했다?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맞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냥 발표만 전면 도입한다는 정도 수준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에 어떤 품목에 진행은 어떻게 도입하는 일정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된 바가 없다?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맞습니다.

○윤준병 위원 오케이.

우리 손보와 관련해서요, 또는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보험 설계를 할 때 이런 내용으로 좀 보험 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입안정보험도 마찬가지고 농산물재해보험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위험을 분산시켜서 연대해서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맞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런데 이 관련된 기본 안전망 이건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기본적으로 정책보험으로 기본 안전망을 이렇게 맡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신에 선택적인 안전망, 예를 들면 그중에 꼭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선택적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안전망 이런 것은 정책보험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게 맞지요, 방향은?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윤준병 위원 그런 내용으로 농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재해대책법이나 또는 재해보험법 또 이번에 정부가 전면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수입안정보험 이 내용들도 그런 틀 속에서 한번 보험 설계를 해 주시고 설계된 내용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 회장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윤준병 위원 21대 국회에서 농협 개혁법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허용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게 통과되지 못하고 좌초했습니다.

회장님 입장에서 보면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허용과 관련된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윤준병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못 들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저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는 없고요.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윤준병 위원** 아니, 그래도 예전에 21대 때 논의될 때 충분히 듣고 논란이 있었던 것 다 아실 텐데 그때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었어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그때 찬성입니까, 반대였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저는 솔직히 그때 통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뭐 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 자신감도 피력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조합장님 의견이라든지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중앙회장이 다시 선임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농협법 내용에서 중앙회장의 권한, 대표 범위 이게 바뀌었어요. 아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알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 업무 구조나 이런 내용들이 바뀌어야 될 텐데 내가 업무보고 내용도 보고 업무보고 내용 속에 들어 있는 직제표, 구조표 이것 보니까 예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는데 예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중앙회장이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주권 행사의 근거는 무엇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은 100%, 예를 들면 금융지주 100% 가지고 있잖아요. 중앙회장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주주권 행사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중앙회장이……

○**윤준병 위원** 그런데 권한 행사와 관련된 근거가 없는데 역대로 그냥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중앙회장이 100% 행사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법이 바뀐 것처럼 교육, 발전 그다음에 상호금융, 조합감사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상 없는데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근거, 법적 근거 그다음에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법이 바뀌면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중앙회장님, 아까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해 금감원이 농협 계열 보험사에 대해 대부분의 이사가 보험업 관련 경력이 없거나 미흡하다 해서 보험업 경력 등을 고려해 이사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근 NH손보는 또 보험업 경력이 전무한 조합장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했어요.

금감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이사회의 금융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물론 손해보험이라든지 생명의 여러 가지 전문성이 강조되어야 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조합장님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저는 전문성 결여가 아니고 오히려 전문성이 있는 분을 우리 사외이사로 초청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손해보험이나 생명이 지금 방카슈랑스 이후에 약 90% 이상이 지역농협에서 보험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3선 이상의 조합장님이 비상임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보험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보다는 훨씬 더 전문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양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혀 이행할 의지가 없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경제대표님, 아까 제가 도축 수수료 그것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 의향이 어떠냐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도 성난 우리 축산농가 농민들을 좀 어루만지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그래서 지금 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가 경영안정 방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자구 노력으로, 도축 부문에 저희가 결손이 상당히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수료를 올리는 대신 농가 경영안정 방안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아껴 뒀던 교육지원사업비 절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32억을 풀어서 그쪽에 지금 투입을 했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역할이 되고 있고.

또 무이자 자금 1000억을 별도로 다른 데에서 할애해서 이쪽 조사료 생산·유통에 우리 농협이 주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협사료에서는 자동급이 농가 편의시설을 위해서 올해 100억의 지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걸 올해 이번에 특별하게 125억 원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거지요?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예.

○**이양수 위원** 제가 축산농가들을 만나서 농협의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를 여쭈어보고 다음 상임위 때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예,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리고 농협중앙회장님하고 축산대표님하고 같이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법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냥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은, 축협 조합원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되거든요. 경영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복수조합원 가입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경영주의 가족들이 실제로 축산업에 종사함에도 조합원이 안 되는 거지요.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수차례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정리가 안 되나요? 이게 지금 청년농이라든지 규모화된 농가의 가족원 중의 배우자 이런 분들은 조합원 가입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물론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문제지만 우리 농협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리가 안 돼요. 계속 그냥 견의하고 말고 견의

하고 말고.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회장님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저는 지금 농촌이 가장 어렵고 인구 감소가 절실합니다. 우리 조합원 수도 격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농촌 소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농촌 소멸의 가장 좀 나름대로 지탱을 하는 게 우리 지역농협이다 생각하는데, 지금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조합원 가입이 출자금만 납입하면 됩니다. 앞으로 농촌 소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농촌에 거주하는 3년 이상의 자격이 되면 자동적으로 조합원 자격 조건을 부여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은 같은데요. 지금 그 생각은 농협의 생각이나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이것을 여러 차례 확인을 했고 농림부와 어떻게 협의를 해서 결단을 내려 가지고 이것을 관철시킬 거냐? 뭐 직을 걸고 하겠다라든지 뭐랄까 각오가 담긴……

1분 더 되나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농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농촌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걱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예, 다음 상임위 때는 한번 그 진행 과정을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됐다 이렇게 좀 한번 시원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강호동 회장님, 국회에 처음 나와 보신 거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나오시니까 어떻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얼떨떨합니다.

○**정희용 위원** 농업 현장에 얼마나 계셨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저는 한 40년 가까이 됩니다.

○**정희용 위원** 40년 가까이. 요즘 처음에 그 현장을 접하실 때 농업 현장이 좀 많이 개선되다가 다시 또 많이 어려워졌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현실을 보시면 되게 좀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도 드실 것 같고 또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드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정희용 위원** 그래서 4년 동안 농협중앙회장님 임기 중에 많은 업적을 남기실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감사합니다.

○**정희용 위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회장님. 비가 많이 왔는데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고 앞으로 이 비 집중호우 이상기후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실질적이고, 이렇게 피해 입은 분들께 보상을 좀 현실화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회장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아시지요? 이게 2015년 11월에 한중 FTA 비준 당시에 여야정이 협의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이득공유제 여기서 반발이 있으니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됐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전체 목표액의 23%에 불과하다, 기금이. 그래서 이게 자발적인 기부를 재원으로 하고 FTA로 혜택을 보는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취지인데民間 참여율은 또 38%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이 기금이 발전해 나가야 할 건지 회장님 가진 생각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께서 무역이익공유제 말씀을 하신 건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WTO 협정이라든지 한미 FTA 협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우리 농민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무역이익공유제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쌀값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 이 현실이 그 당시에 우리 FTA 협정에서 수입쌀 41만t, 지금 40만 9000t이 의무적으로 수입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이 보면 21만t이 초과 생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무역이익공유제 당시에 41만t의 나락이 수입이 안 됐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벼 생산량이 100% 자급률이 안 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해서 지금 이 쌀값 폭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민들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 당시에 무역이익공유제에 따른 부분을 적극 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기업에서 이런 농촌의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수출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무역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익금을 농촌으로 적극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 현장을 회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계절근로자가 잘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이 계절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함께 우리 농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농협에서 역할을 해 달라 이런 주문 많이 받으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신경을 좀 많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지금 계절근로자를 운영하는데 지자체와 저희 농협이 공동으로 외국에 나가서 직접 면접도 보고 해서 우리 농협은 여러 가지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 전국의 1111개 농협 중에서도 APC를 운영하는 농협이 많이 있습니다, 인력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력을 수급해서 직접 이렇게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APC의 내에는 그 인력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농협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 주셔야 계절근로자 운영에도 운영의 묘가 생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계절근로자 저희 농협에서 운영 적자 발생 요인이 그 근로자를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면 활용을 못 합니다, 그 특정한 때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농협이 직접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것 규제를 좀 풀어 주면 지역농협에서 손실 부분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희용 위원 그 상세 자료를 의원실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앞선 질의에서 우리 농촌 고령화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에 가면 파크골프가 열풍입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도 파크골프 대회를 후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조합원분들 또 농촌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께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방법들도 좀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 마지막 순서로 이원택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중앙회장님, 사실 1차 질의 때 쌀값 문제 실효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 좀 말씀드렸고 소값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사실 한우농가가 어렵다는 것은 제가 재차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한우농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아니요, 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뭐냐 하면 지금 소비 촉진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수도권의, 전국의 소고기 판매점은 가격을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좀 내려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예, 소비 촉진과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 한우농가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고 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축산대표 계시는데 저는 암소 시장격리를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2만 두라고 그랬는데 아마 소 유통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소를 잡아서 냉장 보관, 냉동 보관하다가 적정한 시기에 내시는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업체들에게 차액 지원을 통해서 암소를 긴급하게 2만 두 정도 격리를 하면 이 소값 시장이 안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암소를 매입하는 자금, 보관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못 한다가 아니라 어차피 유통업체들이 인센티브를 좀 주고 그 차액 지원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축산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지금 암소는 이미 출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가 되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원택 위원 축산대표님, 지금의 쳐방으로는 2025년 이후라니까 26년부터나 소값이 안정된다는 건데 올해, 내년까지 한우농가들, 그냥 한우농가들 알아서 버티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은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아까 제가 암소 2만 마리, 이제 예를 든다면 우리가 농산물 중에 산지 폐기하는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잉 생산하면 배추네 무네 다 산지 폐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예.

○**이원택 위원** 또 쌀도 시장격리하잖아요?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예.

○**이원택 위원** 암소도 시장격리하는 겁니다. 그런 정책의 일환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거기에 드는 차액 지원과 관련된 대책안을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에 좀 보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예.

○**이원택 위원** 그래서 좀 실효적인 대책을 중앙회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절박하게 말씀 드리겠고요.

이번에 호우 피해가 충청권, 경북 또 전북에도 호우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도 호우 피해가 있었는데 군산·익산·완주가 호우 피해가 심합니다. 그중에 가축 피해, 한우·닭·오리, 꿀벌 피해도 있었고요. 또 논콩, 시설원예, 벼 피해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손해보험대표님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현장에 선제적으로 나가서 잘 대응해 주고 있더라고요. 사각지대 없게 적극 수해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대책을요.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 예,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중앙회장님, 전라북도가 보리농사를 하는데 전남은 수해 피해가 있었는데 전라북도는 잦은 피해로 인해서 보리의 생육이 제대로 안 돼서 수확량이 급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통계청 결과가 나올 텐데, 그래서 보리농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를 좀 늘려 주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간접 지원을 해 줄 것을 보리농가들이 요청하고 있는데 중앙회에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괜찮으시겠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이원택 위원**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금원 원장님, 농업수입보장보험 관련해서요. 사실 지난 10년간, 10년 가까이 콩·포도·양파·마늘·고구마·가을감자·양배추 이런 것들 해 왔지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서해동**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농민들의 반응은 좋은데 사실 정부가 소극적이었습니다. 맞지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서해동** 예, 시범사업으로 죽 해 왔습니다.

○**이원택 위원** 예, 시범사업으로 해 왔는데 21년·22년에는 예산을 반토막 될 정도로 정부가 이 예산을 신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주장하다 보니 농업수입보장보험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정책도 진일보한 정책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좀 걱정하는 것은 출속 도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하게 준비를……

1분만 주시겠습니까?

충분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농업재해보험의 지금 73개 품목 하는 데 20년 걸렸지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서해동** 예.

○**이원택 위원** 그렇지요. 농업 수입안정보험도 충분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하나는 자기부담 비율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요. 재해가 발생됐을 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자기부담 비율이, 농민 부담 비율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처럼 중소농이 많은 나라에서 과연 이 민간보험 제도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 그런 것도 좀 잘 따져서 중소농이 많이 가입할 수 있는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준비 추진 사항이랑 이런 것을 저희 의원실에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서해동** 예,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2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3차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3차 질의를 시작할 텐데요. 질의 시간은 추가 시간 없이 3분 짧고 굵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차 질의 이병진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위성환 본부장님,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지금 수의직은 몇급으로 임용합니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위성환** 제가 알고 있기도는 7급으로 임용합니다.

○**이병진 위원** 의사직은요, 의사직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위성환** 의사직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4~5급으로 임용하지요, 수의직은 7급. 이것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지금 기후변화도 그렇고 동물 방역·검역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렇게 7급으로 임용하면 누가 수의직에 지금 지원하겠어요? 아까 말씀 올렸듯이 결원된 부문도 너무나 많고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위성환** 사실 수의직 공무원은 정부나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고 저희 방역본부는 농식품부 산하의 공공방역기관입니다. 그래서 수의직은 상관없습니다.

○**이병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수의직, 반려동물 동물병원으로 가지 않고, 인수감염병이 이제는 많이 발생될 수 있는데 우리와 직접 관련된 문제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부 수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개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이 수의직으로 대처가 안 된다면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업무를 나눌 필요가 있다.

지금 보면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괜히 공무원들이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현장에 막 투입되고 말이지요. 이런 문제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완을 당부드리고 한번 보완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수광양항만공사 박성현 사장님 오셨지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예.

○이병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PA 중에서 브랜드 평판 몇 등 하고 있어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PA 중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중소도시이다 보니까 인지도가 많이 낮습니다.

○이병진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작년에 보면 물동량은 2억 7000만t, 2위이고 말이지요. 수출입 물동량은 2억 400만t인데 매번 하다 보면 브랜드 PA 중에도 꼴찌고 정부 산하,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8개 중에도 브랜드평판지수가 최하위로 나오고 있어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예.

○이병진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여기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 이렇게 총합을 해서 브랜드평판지수를 만들어 내거든요.

그런데 저기 PPT 보면, 계속 한번 넘겨 주세요.

이거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그 자리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저는 소비자와의 소통량이 부족하다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소비자를 위한 정보데이터가 부족한 거지요. 소비자는 이용자가 되겠지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지금 저희들 지역의 각종 엘리베이터에 대한민국 전체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으로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포터즈들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TOP 10 선사들 그다음에 화주사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병진 위원 그래요. 그것만 했는데도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사를 위해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예.

○이병진 위원 만날 꼴등 해 가지고 어디 낮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마사회장님,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내용은 불법 경마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보시면 사실 불법 경마의 총액 규모가 합법 경마보다도 더 많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19년도, 22년도 비교해 보면 거의 22% 이상 또 증가일로에 있고 또 경마 사이트 단속 현황도 23년 기준으로 봐도 전체 2만 2000건이 넘는 정도로 사이트가 이렇게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법 경마 단속과 관련된 인력과 예산은 모두 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회장님께서 불법 경마에 대한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활동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난 코로나 과정에 온라인 경마가 시행이 됐습니다. 사실 온라인 경마 관련해서 많은 분들은 아무나 다 들어가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애플리케이션도 마사회 본사 홈페이지지만 일단 한정되어 있고 또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도 모두 실제로 마장에 가서 실명 확인을 받아야 되고 또 금액 자체도 소액으로 되어 있고 사감위에 실링도 정해져 있는 등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하다 싶다 할 정도로 규제가 정확히 돼요.

특히 실명제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은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온라인 마권 관련해 가지고 좋은 상품,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사행성에 대한 문제를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도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사회 발전을 위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리고 아까 잠시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영천에 제4경마장이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공모사업이었는데 무려 13년 만에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한 36%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2026년도 완성을 목표로 채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차질 없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마사회 본사 이전 관련해 가지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실제로 마사회 본사가 과천에 있지만 거기에 위치를 잡은 지가 3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마장 주변에는 이미 아파트와 각종 업무시설들이 들어서서 더 이상 경마장으로 두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또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영천경마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44만 평입니다. 1단계 사업 20만 평, 2단계 사업 24만 평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거기에 마사회 본사를 비롯해서 이전하는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방침이 아시는 대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저희 기관의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정부 기구로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부 정책이 확정되면 그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기준의 부지가 이미 다 마련되어 있고 그 주변에 지하철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 **이만희 위원** 전향적인 자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
○ **위원장 어기구** 마사회 사장님, 영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임미애 위원**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님, 아까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들어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올해 말까지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6월 달에 관계부처 모여서 대책회의 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예, 맞습니다.

○ **임미애 위원** 그때 어떻게 얘기가 됐나요? 좀 짧게……

얘기가 잘 됐나요?

○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환경부 담당 국·과장님하고 저희 농협과 축협 조합장님하고 저하고 해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후에 2차로 대책회의를 다시 한번 하기로 하셨나요?

○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그거는……

○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요, 이게 벌써 4년을 유예를 한 거잖아요. 다시 유예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한우농가의 소값이 떨어진 문제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실제 현장에서 한우농가, 돼지농가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똥 때문에 못 키우겠다’ 이 얘기 합니다.

○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예.

○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를 해양투기 했잖아요. 2012년도부터 금지됐잖아요. 그 뒤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퇴비화하자라고 얘기했는데 퇴비화도 지금 대기환경법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유예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그거는 그 표준시설도 아직 마련이 안 됐고요. 그 두 달 전에 또 환경부장관님, 현장에서 건의를 드려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더 체크를 해 보고요.

유예기간 연장 그다음에 그 배출 기준을 좀 변경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금 이미 그 시설을 유효성이 투자해서 한 우리 축협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30ppm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환경부하고 지금, 이미 알고 있고요. 진행상황을 좀 더 챙기겠습니다.

○ **임미애 위원** 지금 축협 자원화시설 제가 파악하기로는 32개 중의 29개가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농·축협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나마 자본 규모를 가지고 있는 농·축협에서 이 문제를 예산을 조금 더 쏟아붓고 적극적으로 이거를, 에너지화하는 방안까지 고민을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화하는 문제까지 조금 더 고민해서 이 문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재해지원 담당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전무이사입니다.

○박덕흠 위원 아까 인사말씀에 재해지원 무이자 자금 2500억 원을 신속하게 지원했다고 했는데 언제 지원했다는 거예요? 지원했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상반기에 일조량 부족하고 냉해 지원으로 2000억 지원했고요.

○박덕흠 위원 2500억?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2000억이요.

○박덕흠 위원 그 현황을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예.

○박덕흠 위원 영양제 농약 했다는 것 그 부분도 한번 보내 주시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예, 다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다음에 지난주 극한호우 피해지역 2000억 조성해서 지원할 예정이잖아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배정했습니다.

○박덕흠 위원 신속하게 하고.

우리 지역 옥천, 영동이 피해지역입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예, 각별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잘챙겨 주시고.

그래서 생필품은 저희 지역이 좀 받은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지준섭 예,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잠깐 질의 전에요.

농림부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예, 식량정책관 참석했습니다.

○임호선 위원 지금 무슨 담당……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식량정책관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마이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 **임호선 위원** 식량정책관님?

○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예.

○ **임호선 위원**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제가 이거 질의 준비를 안 했었는데 아침에 오전질의 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송미령 장관님 모시고 업무보고 때 임석하셨지요?

○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예, 배석했습니다.

○ **임호선 위원** 그러면 쌀값, 마치 농협하고 다 얘기가 된 양 15만t…… 격리, 소비촉진 포함해서 10만t 농협에서 다 담당하는 걸로 업무보고 하는 것 다 들으셨고 질의 답변하는 것 다 들으셨지요?

○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예, 저희가……

○ **임호선 위원**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농협중앙회장님을 포함해서 여기 지금 배석하신 분들, 10만t에 대한 정확한 협의도 없었고 소비촉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다, 지금 농림부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 이런 요지로 답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 해명해 주십시오.

○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쌀 초과생산량은……

○ **임호선 위원**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예.

농협 RPC협의회에서 15만t 건의가 있었습니다. 전남도에서도 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쌀값이 계속 하락함에 따라서 저희가 정부 내 그리고 농협의 실무진들과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초에 농협에 쌀값 안정 자구책이 필요하다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 농협에서 6월 12일경에 저희한테 농협 자구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자금 지원으로, 저가투매 방지로 5000억을 해서 6만t 규모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소비촉진 홍보로 신규 수요를 2만t 창출하겠다 그리고 범농협이 판매활성화를 통해서 2만t을 하겠다 해서 10만t의 효과가 있는 자구책을 추진하겠다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 **임호선 위원** 정책관님, 정부에서 격리하겠다는 그 5만t이 순수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농협 RPC에서 재고 쌓아 놓은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까?

○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저희가 2023년산 10만t을 식량원조용으로 매입해서 지금 외국으로 보내고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6월 21일 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했던 정부가 5만t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협 RPC와 민간 RPC가 가지고 있는 5만t을 저희가 지금 매입을 해서 정부 창고로 이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임호선 위원** 그거는 시장격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추가로……

○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추가로 지금 매입해서 우리 창고로, 정부 창고로 옮기고 있습니다.

○ **임호선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지금 농협하고 정부하고, 정부가 완전히 농협을 무슨,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무슨 하수인 부리듯이 전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보도자료 내고.....

오늘 여기 국회 나와 가지고 답변하는데 10만t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비 물량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 못 하실 정도로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이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림부의 무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당정협의회에 농협경제대표께서 참석을 하셨고 그 안건에 분명히 정부 5만t과 농협 10만t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쌀값 하락의 원인은 초과생산량이 9만 5000t이었는데 저희가 10만t을 이미 매입해서 식량원조로 쓰고 있고 이게 쌀 과잉에 의한 문제라기보다 농협으로 인한 재고 쏠림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농협의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고요. 그래서 농협의 자구책이 제시됐기 때문에 저희 정부도 거기에 상응하는 5만t의 매입을 해서 지금 시장에서 격리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위농협 RPC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 신경분리 원칙에 맞도록 판매농협으로서 농협의 역할에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전문가시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비촉진이 시장격리입니까, 아니면 소비촉진이.....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이 제시했던 소비촉진은 쌀밥 식습관 형성이라든지 2024년산 쌀 생산량 감축으로 쌀 2만t 규모의 신규.....

○**임호선 위원** 시장격리가 아니라 시장방출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신규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게 어떻게 시장격리가 됩니까, 시장방출이지. 그러면 시장가격이 하락하지 그게 쌀값을 잡겠습니까?

○**위원장 어기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쌀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서 소비촉진을 하겠다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임호선 위원님 질의에 부족한 부분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보충해 주시고요. 질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저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류광수 이사장님, 한수정에서 하는 생활정원조성사업이 엄청 인기가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20년도에 5곳에 실시했는데 작년에는 거의 40군데 실시를 했어요. 올해는 몇 군데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직무대행 이석우** 6군데 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왜 이렇게 대폭 줄었습니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직무대행 이석우 그 예산이, 생활밀착형 정원조성예산이 국고이기는 하지만 정부 쪽에서 지방으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6군데입니다.

○주철현 위원 아, 지방으로 이양이 돼 버렸어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직무대행 이석우 예.

○주철현 위원 인기가 좋고 우리 여수에도 국내 최대 다기능항인 국동항에다 이것 설치를 해서, 바닷가에 설치를 했는데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조성이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가 문제더라고요. 유지관리를 잘 좀 해서 지자체에 잘 넘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는 그러면 국비는 전혀 반영 안 되어 있습니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직무대행 이석우 지금 작업 중이기는 합니다. 작업 중이기는 하지만 지금 확정된 금액은……

○주철현 위원 예, 좀 더 예산 늘려서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직무대행 이석우 예, 알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다음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잠깐 멈춰 주시고요, 마이크를 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원장님, 우리나라가 한때는 선원공급국이었는데 지금은 선원수요국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지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김민종 예.

○주철현 위원 우리나라 외국인 선원 인력 비중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김민종 약 한 48% 정도……

○주철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기사 양성의 책임을 진 곳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아닙니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김민종 예.

○주철현 위원 책임의식 갖고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김민종 예, 저희가 선원 재교육·양성, 선원 자격검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양성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작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저희가 해양물류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우리 해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해기전문인력의 양성하고 유지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김민종 예.

○주철현 위원 최근에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하던데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김민종 오션폴리텍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해기사 단기 양성 과정입니다. 저희가 4개 과정을 운영 중이고 작년까지는 정원 대비 40% 미달로 운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재를 유치해 가지고 정원 대비 한 90%까지 모집을 했고 현재 운영 중입니다.

○주철현 위원 좀 더 이 사업을 확대해서 국내 내국인들의 해기인력을 증원하고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김민종**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리고 해기인력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원 차원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김민종** 예.

○**주철현 위원** 관련해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의원실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김민종** 예, 알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김민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지난 5월 2일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난개발 및 민간 특혜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으셨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전종덕 위원** 감사원 감사 결과 건축심의 업무 부당처리, 분양관리 신탁계약 및 전매승인 업무 부당처리, 계약해지 법률검토 업무 부당처리, 공공기여 지원사업 협의 업무 부당처리, 국회 요구자료 작성·제출 업무 부당처리 등 몇 가지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들에 대해서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했는데 중징계를 한 2명에 대해서는 징계위를 열지 않고 5월 28일 날 재심의 청구를 했네요. 감사원법 36조에 따르면 위법·부당한 경우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재심의를 청구한 것 같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신 것 같지요? 감사원이니까 위법은 아닐 거고요.

재심의 청구를 위해서 2명에 대해서 착수금 4000만 원을 포함해서 성공보수 포함 총 1억 1500만 원의 법률비용을 공사에서 하시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네요. 본인의 책무 소홀로 인해서 공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국민적 시각으로 보면 구상권을 청구해도 부족할 판인데 법률자문비용을 공사가 부담하는 게 맞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감사원 징계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 주시고요.

만약에 재심의 결과 기각되거나 패소할 경우에 이 법률비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그런 것까지 방안이 마련되신 건지 관련해서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계획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도 감사원 지적사항에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됐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잘못한 직원 중징계 재심의는 아주 서둘러서 하시고 정작 손해를 끼쳤던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소극적이신 것으로 봤을 때 감사원 징계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것으로 인식되고 이게 정말 공사로서의 적절한 조치인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과 관련해서 답해 주시고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할 의지와 계획이 있으신지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건 관련해서는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을 했고 재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따른 징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법률에 따른 구상권 문제 이것은 만약에 패소를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나중에 본인한테 구상을 하게 됩니다. 아직은 폐소를 할지 안 할지, 얼마나 유죄가 있는지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우선 회사에서 지원을 하고 나중에 폐소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개인한테 구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종덕 위원 그게 맞나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 법률 검토도 했고 4개 PA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감사원 징계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거예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아니,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감을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종덕 위원 어떻게 이행하실 건지 계획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어기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기존의 제안서대로 하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법률적으로 이행을 하게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서 감사원하고 협의를 거쳐서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문금주입니다.

먼저 항만공사 관련해서 답변까지 바라지는 않고요, 향후에 국정감사 때 점검을 할 테니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여수광양항만공사 같은 경우도 보안장비를 봤더니 한 5년간 변화가 없는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아마 다른 항만공사도 비슷한 사정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들 좀 대비해서 대비 태세를 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때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도 각 공사에서 여러 가지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던데 최근 10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를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안전하다고 자랑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많아요. 최근 10년간 4개 공사에서 453건 그리고 사망사고가 16건에 달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안전예산 및 인력 확보를 통해서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비를 해 주시고 국정감사 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정책관님 잠깐만……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예.

○문금주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속 시장격리를 요구하고 농민단체에서도 시장격리 15만t을 요구하고 우리 국회에서도 촉구 건의도 하고 그랬지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예, 그렇습니다. 전남하고 충남에서 건의가 있었고요, RPC 협의회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런데 겨우 하는 게 지금 5만t만 시장격리를 하겠다는 거고 나머지는 소비촉진 등 다른 수단을 통해서 그런 효과를 내겠다고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예, 농협이 자체적 자구책으로 10만t에 대해 자구책을 하고 정부는……

○**문금주 위원** 농민들은 하루가 힘들어 가지고 지금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그렇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나 농민단체에서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을 왜 개정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지금은 저희가 민당……

○**문금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농협이 그 10만t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빨리 발표를 하고 그 시장 상황을 저희는 보고 난 이후에, 시장 상황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아니, 현장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지금 전체 매입량……

○**문금주 위원** 정책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단위농협의 RPC들의 재고 쓸림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민당정협의회 결과에 따른 농협의 실질적인 대책 발표와 그 후속조치를 본 이후에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할 계획입니다.

○**문금주 위원**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그렇게 자꾸 차일피일 미루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령으로 해서 좀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그런 취지예요. 적기에 여러분들이 해줬으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거부권을 당한 그런 법안을 제출하지도 않았을 건데 좀 타이밍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예, 농협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잠깐, 정책관님 조금만 계세요.

농협 박서홍 경제대표이사님 마이크 좀 같이 주시지요.

지금 문금주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장에서는 난리잖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계십니까?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예, 조합장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현장에서는 7월 안에 15만t을 격리하지 않으면 2022년 꽂이 난다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예.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이 쌀값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여기 계신 두 분이에요, 농협과 농림식품부. 그런데 지금 서로 핑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정책관님 말씀에 대해서 경제대표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두 분이 해결해야 됩니다, 두 분이.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쌀 과잉은 소비 부진에서 온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장 어기구 소비 부진은 지금 갑자기 농협에서 더 하시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단기간 내에? 지금 당장……

지금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다, 우리 2022년도에 한번 겪어 봤지 않습니까. 그때 37만t을 우리가 격리했어요. 그런데도 안 됐어요,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타이밍이거든, 타이밍.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그런데 계속 지금은 시장 상황 본다, 소비 촉진시키겠다 이게 답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너무 답답해요, 지금.

어떻게 하실…… 오늘 여기서 답을 못 내겠지요? 7월 안으로 해야 됩니다, 7월 안으로. 이제 두 달 있으면 햇곡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정책관님, 앞으로 햇곡이 나오면 산지 쌀값 20만 원 작년처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저희는 2023년산 쌀값 대책과 2024년산 수확기 쌀값 안정,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신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가지고 재배 면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아니,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농민값이라는 쌀값을 못 잡으면 정말 대란이 일어나 대란이. 전략작물도 하시고 소비도 촉진하시고 좋아요.

그런데 당차 앞으로 두 달 있으면 햇곡이 나올 텐데 그때 산지 쌀값을 어떻게 잡을 거냐는 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당정 협의 결과에 따른 농협의 10만t에 대한 선조치, 선발표와 그 대책 내용이 발표가 돼야 정부가 룸이 생깁니다.

○위원장 어기구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부가 핑퐁을 하셨어요. 농협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쌀값에 대해서,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기존의 1000억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요 하여튼……

다시 말씀드려서 소비 촉진이 우선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회의 끝날 때까지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박서홍 대표님!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예.

○**문대림 위원** 소비 촉진 계속하시고요.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물류기기 이용시장 독과점구조 개선 합리화 관련해서 업무보고 내용에 전혀 내용이 없더라고요.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예.

○**문대림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부 시책에 적극 협력하십시오.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예, 잘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소비 촉진만 하지 말고 이것을 중요시 한번 해 보십시오.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잘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 의원실로 반드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경제지주회사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예, 잘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마사회 정기환 회장님!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문대림 위원** 말 사육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제주도입니다.

○**문대림 위원** 제주도지요. 한 55% 가까이 되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문대림 위원** 초지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 어디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지금 우리나라를 제주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50% 정도 되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문대림 위원** 그리고 마권 판매와 관련해서 본사 빼고 어디가 수 1위를 달리고 있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문대림 위원** 마권 판매 비중 15%.....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경마장별로는 서울, 제주, 부산 순입니다.

○**문대림 위원** 서울 다음 제주지요?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문대림 위원** 그리고 경마산업은 말산업이자 관광산업의 성격을 갖는다, 동의하십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관광산업 연계성 기반이 풍부한 곳..... 여러 시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제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제주관광은 세계적인 것이니까 다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렛츠런파크와 렛츠런파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 어디입니까?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제주입니다.

죄송합니다.

○**문대림 위원** 제주도입니다.

물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정치 논리가 아니라 산업 연관성이 충분히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입장이고요. 1차 산업인 말산업, 3차 산업인 관광산업을 제대로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본 위원은 그곳은 제주라고 생각합니다. 전향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과 선의의 경쟁을 하겠습니다.

○**한국마사회장 정기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강호동 회장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서천호 위원** 농협에서 전국에 771개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하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서천호 위원** 그래서 품목마다 지역마다 수수료율이 4%에서 20%까지 제각각인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별 또 품목별 조금 어느 정도 평균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준칙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지금 규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도매시장 농산물 상장 수수료율이 지금 7%로 상한선이 제한돼 있듯이 그런 부분, 상한선 도입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 농민들에게 조금…… 출하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연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제가 각종 데이터를 열람하다 보니까 눈에 확 띠는 데이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농협에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난 5년간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건수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보니까 2022년도는 5430억 정도, 2023년은 4472억인데 농협에서 의심계좌 모니터링 영업창구를 통해서 예방한 금액이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290억 또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70억, 이렇게 되어 있고 지난 5년 차를 합산하니까 1100억가량 예방을 한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협 차원에서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 금액이고 더불어서…… 지금 현재 보이스피싱 수법이 상당히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지역은 고령화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농협 활동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좀 부탁을 드리고 프로세스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항만공사 사장님들께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부두에 정박 중인 선박이 시동을 끌 수 있도록 육지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시설을 지금 각 항만공사에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부산항만공사 29개, 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 3개, 울산항만공사는 하나도 없고요. 뭐 이것도 하나도 없는 것 예전에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아직도 하나도

없다는 게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에는 2022년, 2023년 2년간 이용률 제로입니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우에는 지난 국감 때 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랬더니 눈에 띄게 실적이 늘었어요.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윤준병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역시 AMP 이용률 제고는 각 항만공사의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국감 전까지 이 부분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농협의 연체 문제, 도덕적 해이 문제 또 농신보 한도 축소 문제 등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중복되지 않게 곁들여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농협은행, 단위농협이 예대마진으로 지금 한 7조 내지 8조 원의 이자 이익을 얻고 있는데 영농자금 대출의 경우 예대마진 최소화를 통해서 영농자금 대출을 적극적으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윤준병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영농자금 대출상품이 2023년도 ‘함께하는 100년 농촌 저금리 대출’ 이것은 대출 고객 금리가 3%대예요. 그런데 현 잔액이 64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금년 3월 달에 출시한 ‘새출발 행복농촌 상생대출’ 이것은 2%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잔액은 같은 1조 원의 판매한도인데 4500억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2023년도 남은 현 잔액 6400억 이것을 이쪽 상품으로 돌려서 선호하는 상품으로 대출을 좀 해 주셔서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한번 보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윤준병 위원** 식량정책관 좀 나와 보세요.

정부에서 식량정책 이번에 발표할 때, 6월 21일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예, 민당정협의회.

○**윤준병 위원** 발표할 때 15만t 민간비축량 줄이는 내용으로 발표한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23년산 15만 수준의 민간 재고를 해소하는데 정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준병 위원** 민간 해소한다고 그랬지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예.

○**윤준병 위원** 민간 재고를 해소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예.

○**윤준병 위원** 정부 공공비축 어디서 사 왔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24년도.....

○윤준병 위원 어디서 사 오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농협.....

○윤준병 위원 5만t.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RPC.....

○윤준병 위원 그게 민간 재고 해소입니까, 농협 장부같이지.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농협 RPC하고 민간 RPC의 재고 먼저 정부가 매입합니다.

○윤준병 위원 농협에서 4만 4000t.....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민간에서 600t.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6000t.

○윤준병 위원 6000t. 이게 어떻게 해서 민간 재고를 해소하는 거예요, 농협 장부 재고 같이지?

그다음에 자구책을 통해서 10만t을 격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10만t이.....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재고 10만t을 해소한다고 했어요.

○윤준병 위원 해소한다, 해소한다는 내용이 사실상 격리와 같은 범위는 수준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만드는 건데 그러면 그 효과가 발휘되도록 농협을 제대로 촉구를 해서 독려를 해서 만들든지 아니면 정부가 사든지 해서 약속된 내용을 이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예, 지금도.....

○윤준병 위원 왜 말장난들만 하고 전혀 효과가 없는 것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정부 대책이라고 발표했어요, 이번에?

○위원장 어기구 마무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예, 위원님.....

○윤준병 위원 제대로 된 대책을 제출하세요.

○위원장 어기구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농협과 다시 협의해서 우리 야당 위원들께도 한번 그 정책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위원들만 당정 협의하지 말고 야당 위원들이 궁금하니까.....

정책관님,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윤준병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국장이 나와서 실실 웃고 앉아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윤준병 위원 자세가 그래서 되겠어요!

○위원장 어기구 위원님!

자, 위원님, 이제 정책 보고 해 주기로 했으니까 차분하게.....

다음은 이원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저 1분만 할게요.

윤준병 위원이 제 거 2분 쓰신 것으로 하고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인천항만공사 사장님!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 예.

○**이원택 위원** 여기 데이터를 보면 21년, 22년, 23년 이자비용이 315억이지요, 그렇지요? 23년에 그렇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 예.

○**이원택 위원** 부산항만공사 것…… 부산항만공사도 보여 주시겠습니까?

부산항만공사는 23년에 이자비용이 769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PPT 넘겨 주시겠습니까?

인천항만공사는 작년에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추징금이 이렇게 11억하고 부가가치세 492억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상 해명 조치를 받았는데 대책을 좀 마련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 예, 조세심판 중입니다마는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다음에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만기 도래가 24년에 3600억, 25년에 6800억, 28년에 1조 800억입니다. 사실 재무구조가 걱정되는데 북항 1단계, 2단계가 보통 1조 2000억, 1조 3000억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진해신항도 근 1조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사업 수익이 어떻게 될지…… 아니면 이 재무구조가 상당히 흔들릴 것 같은데 국감 때도 좀 논의하겠지만 이 대책을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정희용 간사님 질의?

○**정희용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앞두고 여야가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기관이 너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다 오시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 있어서 동의했습니다마는 우리 20여 개 이상의 기관장님들 또 농협중앙회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들 또 기관의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비효율이 없도록 야당 간사님과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도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울진에서도 오신 것 같은데 울진의 국립해양과학관장님.

○**국립해양과학관장 김외철** 예.

○**정희용 위원** 울진에서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국립해양과학관장 김외철** 오늘 저희들 5명 왔습니다.

○**정희용 위원** 서울까지 오시는 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국립해양과학관장 김외철** 4시간 반 걸렸습니다. 빨리 왔습니다.

○**정희용 위원** 4시간 반 걸려 오셔 가지고 한마디도 못 하고 앉으셔 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울진 국립과학해양관을 많은 국민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과학관장 김외철 예, 말씀 잘 새겨서 기관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질의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데요. 오늘 정희용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시피 24개 기관이 오늘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멀리 오셨는데, 정말 4시간, 5시간씩 시간이 걸리면서 멀리 오셨는데 한 말씀도 못 하신 기관장님들이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 겸 또 기관 홍보 겸해서 각자……

○조경태 위원 아까 제가 빨리 보내 드리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요. 그런데 간사님들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대요.
그러면 각자……

○이원택 위원 이게 4년 첫 임기 시작할 때 전체 불러서 이렇게 죽 질의응답을 했고요.
그런데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조경태 위원님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기 그냥 보내 주셔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고요.

4대 항만공사 사장님들도 오시고 그랬는데, 항만공사 사장님 오늘 질의도 못 받고 그랬는데 저도 한 말씀만 해 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우리 보안 노동자들 열악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2022년에 해수부하고 4대 항만공사 합동으로 연구용역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지난해 말 최종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대 항만공사 사장님들, 항만 보안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잘 계획을 세워서 저희 위원장실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잠깐만요.

오늘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문대림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서천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호동 회장님을 비롯해서 24개 공공기관장님들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장님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18시02분)

○**이원택 위원** 위원장님, 아까 의사진행발언 신청했는데요.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제가 간사 선임되고 난 이후에 그때 법안심사를 하기 위해서 법안소위, 농해수위 소위를 배정하고 또 선출하고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정희용 위원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16일까지 뒤로 미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제 소위를 구성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개 법안이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소위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회의에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또 6월 20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13건의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정희용 위원** 의사진행 또 의사진행 변경 안건과 관련해서는 여야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여야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존경하는 이원택 간사님께서 일방적으로 지금 하자고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

소위 구성 건에 대해서 협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민주당 측의 주장은 기존에 1당이 하던 농림법안소위와 청원소위 그리고 2당이 하고 있던 예결소위와 해양법안소위가 아니라 1당인 민주당에서 농림법안소위와 예결소위를 하고 2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해양법안소위와 청원법안소위를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과거의 농해수위에서 법안소위, 예결소위, 청원소위 이렇게 있을 때 법안소위는 1당이 하고 예결소위는 2당이 하고 이리다가 지난번에 분리가 되면서 농림법안소위, 해양법안소위 그하면서 1당이 농림법안소위, 2당이 예결소위를 했고 관례상 이렇게 안착이 돼 있는데 다수당에서 농림법안소위와 예결소위를 함께 다 가져가시겠다는 것은 균형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그간의 농해수위 관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형식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은 안건을 상정하는 부분도 반대이고 내용적으로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원택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정희용 간사님하고 둘이 의견 교환을 했었고 아마 저희 측도 논의를 하고 또 국민의힘 측도 논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다만 19대, 20대를 보니까 하나 차이가 뭐냐 하면 19대 때는 농림법안, 해양법안이 하나의 소위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대 때는 그때 야당이 예결소위를 가졌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대 때는 이게 분리가 됐더라고요. 농림하고 해양이 분리가 돼 있고 그때도 야당이 이제 예결소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1대는 좀, 아까 정희용 위원님 말씀했던 대로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예산은 정부 여당이 강하고, 아무래도 강하잖아요. 우리 야당이 강할 수는 없으니까 좀 배려를 해 주십사 이렇게 여러 번 간곡하게 말씀드렸고 또 전년도 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야당 위원 쪽은 예산이 좀 덜 반영되고 또 여당 위원님 쪽은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이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정부 여당 쪽에서 대승적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배려를 부탁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좁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 쌀값이나 한우값도 하락돼 가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법안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결론이 나야 될 텐데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말씀드렸던 것고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도, 21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뺏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제가 좀 뭐랄까, 유감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예결소위를 갖게 된 또 적극적으로 하게 된 과정과 배경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지역 예산을 반영하는 차원도 있지만 또 정부 예산을 심도 있게 저희들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정희용 위원** 이원택 간사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 구성 자체의 의석수 자체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위원장을, 소위 위원장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민주당의 어떤 정책적 입장들이 다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위원장 자리까지 또 가져가셔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소위, 예결소위에서 사실상 민주당의 입장대로 정리가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다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원 구성 협상에서도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정리할 때 그때 문제, 지금 우리 농해수위에서도 반복적으로 그냥 의석수, 힘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게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다. 저는, 21대 국회 양곡관리법 처리할 때도 이렇게 힘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게 반복이 되게 돼 있는데 언젠가 결국은 민주당이 만드는 이 프레임에 다시 반복적으로 될 텐데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이원택 간사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내일 제현절이잖아요. 저희 보니까 8시 반에 의총 하는 걸 보면 여야가 좀 뭔가 원만히 합의됐는데 지금 여기에 찬물을 끼얹어 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냉각시킬 필요는 없다.

그리고 관례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소위 해 봤지만 예결소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다고 그려세요? 전부 다, 예결위 위원장을 지금 민주당이 하는데 거기에서 다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누가 예산 필요하면 다 안 넣어 줬습니까? 여야 다 넣어 주잖아요, 우리 소위에서는. 그렇지요? 다 넣어 주잖아요. 위원장이 뭐 있다고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합니까? 그것 반대하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좀 양보를 한번 해 주시라는 거예요.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장도 지금 민주당, 또 법안소위 제일 큰 그것도 간사님이 위원장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조만한 걸 가지고 관례대로 그냥 가면 되지 예산 평계를 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예산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필요한 건 다른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부탁을 해도 다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안 되는 거지, 여기에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 대승적 차원에서요, 이것 건드리면 또 판이 흐트려져. 지금 분위기 얼마나 좋아? 지금 양곡관리법도 서로, 지금 쌀 문제도 이렇게 잘 해결하려고 우리끼리로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서로 또, 지금 농해수위 위원장님 잘 모시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지 말고 그대로 관례대로 해요.

○**이병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어기구** 예, 한 분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병진 위원**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말씀 귀를 쫓긋 세우고 잘 들었습니다. 역으로

저희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잘 들어 드릴 테니까 잘만 따라와 주시면 우리 각 지역의 예산들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소소한 것까지 최대한 채근하면서 챙겨볼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시면 더욱더 원만한 우리 위원회가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양수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위원장 어기구 예.

○이양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간사님, 이원택 간사님, 그게 원내지도부 방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간사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한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얘기……

○이원택 위원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양수 위원 아니아니, 우리 간사님한테. 협상 권한은 간사님한테 있으니까.

○이원택 위원 원내지도부 방침은 아닙니다.

○이양수 위원 예?

○이원택 위원 지도부 방침은 아닙니다.

○이양수 위원 지도부 방침 아닌데 원내지도부 방침이라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을 좌지우지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간사님께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좀 구하셔야 되는 거면 관례를 따르는 게…… 농림법안은 되게 많잖아요, 크고? 그리고 축산도 다 포함되어 있고 식품도 포함되어 있고. 해수법안소위는 그 규모라든가 전수가 굉장히 작아서, 그리고 여기 지금 대부분 다 농촌 지역 위원님들이시고.

농림법안소위를 다수당이 가져가면 해수법안소위는 조그마니까 그것은 소수당 주면서 거기에 예결위의, 예결소위 위원장 하라고 이렇게…… 그동안 계속해서 관례로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것을 원내지도부 방침도 아니고 우리 간사님께서……

○이원택 위원 20대 때는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21대에서 그랬던 거고……

○박덕흠 위원 그러면 3개 위원장을 다 가져가고 법안소위를 우리한테 주시라고요. 그렇잖아, 그러면.

○이원택 위원 그래서 소위 구성은 새로 시작할 때마다 여야 협상을 통해서 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과 지금 아마 정희용 위원님도 서너 차례 논의를 했을 것 같고 저희들도 좀 논의를 해 온 과정이고 팽팽하게 의견 교환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전종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전종덕 위원님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지금 소위를 논의하고 있는 자리인데요. 저는 농해수위에서 유일한 비교섭단체, 비교섭단체 당의 유일한 1명입니다. 그래서 4개 소위에서 저를 최소한 법안소위하고 예결위 소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른 당 위원님들은 N분의 1이시지만 저는 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지지하고 또 제가 내야 될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안소위하고 예결소위의 소위원으로, 저는 위원장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소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특히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안소위와 예결소위의 위원으로 꼭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위원님들 귀한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더 이상 소위원회 구성을 미룰 수가 없어요. 위원님, 그렇지요? 제가 지난 회의에도 계속해서 소위원회 명단을 내라, 내라 하셨는데 내지를 않고 있고요. 지금 숙제는 자꾸 밀려 있고 이제 오늘 아니면 또 언제 소위원회 구성을 또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이렇게 상정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양수 위원 아니, 예산소위가 대단히 중요해서 가져가겠다는 거면 이해하겠지만 그것을 왜 가져가시려고 그래요?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박덕흠 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고……

○위원장 어기구 이게 제가……

○이양수 위원 명분 싸움인데 그것을 왜 가져가시려 그러느냐고요.

○위원장 어기구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농어업, 농어민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같이 가야 되고, 원체. 그런데 아까 박덕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결위가 크게, 여기 올리면 저쪽 예결위에서 다 잘리고 계수조정소위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좀 대승적으로 양보…… 아마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같이……

○정희용 위원 위원장님이 중립적으로 진행하셔야 되지 민주당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이.

○이양수 위원 지금 위원장님……

○정희용 위원 위원장님이 그냥……

○위원장 어기구 아니, 제가 싸움 붙여 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양수 위원 대승적으로 위원장님……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안을 하잖아. 법안소위를 우리한테 주고 3개 위원장을 다 가져가라고.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 예결위가 이게 더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거야.

○이양수 위원 아니, 양보를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 많은 데다 양보를 요청해야지 여기다가 하는 평계가 어디 있어요?

○이원택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서로 의견 교환은 충분히 된 것 같고 결론을 좀 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요. 그동안 두 간사님께서 해도 해도 안 되는 거야.

○박덕흠 위원 민주당의 모토가 약자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약자를 위해서 해야지 대승적으로.

○위원장 어기구 여당이 강자지, 여당이 강자예요.

○이원택 위원 국힘이 왜 약자예요?

○박덕흠 위원 약자지, 지금 숫자적으로.

○이원택 위원 정부 여당이 강자지요.

○송옥주 위원 여당이 무슨 약자세요? 여당은 약자가 아니지.

○정희용 위원 특히 송옥주 위원장님이 상임위원장 할 때 이렇게 안 했고요.

○박덕흠 위원 이렇게 안 했잖아.

○위원장 어기구 위원님……

- 전종덕 위원 진행하시지요.
- 박덕흠 위원 그러면 위원장 다 가져가.
- 이양수 위원 아니, 우리 당이 상임위원장 할 때 이렇게 안 했어요.
- 위원장 어기구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 박덕흠 위원 우리 내일 제현절 참석하지 말고 나가자고.
- 위원장 어기구 이원택 위원님으로부터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하여 소위 구성을 완료하고 전체 의결 중인 13건의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 (일부 위원 퇴장)
- 박덕흠 위원 약속을 어기구 해양수산위도 어기구.....
- 위원장 어기구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었습니다.
- 박덕흠 위원 약속을 어기구 관례도 어기구 이름도 어기구, 뭐예요, 이게 지금?
- 위원장 어기구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찬성하는.....
- 이양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말려야지 간사.....
- 위원장 어기구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이게 이제 지금 구성이 안 되면 안 돼.
- 김선교 위원 농해수 위원장님이.....
- 정희용 위원 관례도 어기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 윤준병 위원 빨리 진행하세요.
- 위원장 어기구 자,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윤준병 위원 예, 찬성합니다.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어기구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7조에 따라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변경동의 요청에 따른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유인물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인물 다 배포됐지요?
- 그러면 동 안건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18시17분)

- 위원장 어기구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1차 전체회의 6월 20일에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시고자 하는 소위원회를 간사님을 경유하거나 또는 직접 위원장에게 알려 주십시오 하고 요청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제출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국회법 제48조 및 제57조에 따라서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선임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구성된 우리 위원회 4개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장은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위원장이 간사님과 협의하여 소위원회의 선임 등 소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위 구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인을 소위원으로 하고 이원택 위원님이 소위원장은 맡고 소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금주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국민의힘의 김선교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서천호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그리고 비교섭단체로 전종덕 위원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7인을 소위원으로 하고 정희용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은 맡고 소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문대림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이병진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또 국민의힘은 이양수·조경태 위원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모두 9인으로 하고 윤준병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은 맡고 소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문금주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이병진 위원님, 또 국민의힘에는 김선교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서천호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모두 5인으로 하고 조경태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은 맡고 소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원택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국민의힘 소속의 이만희 위원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장은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전종덕 위원 이의 있습니다.

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7)
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9)
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9)
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2)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6)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8)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0)
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1)

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5)
 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9)
 1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5)
 14. 농어업회의소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0)
 15.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8)
- (18시20분)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5항까지 모두 1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률안의 명칭 및 순서 등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마친 안건입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이 안건들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정상적으로 소위원회 심사가 진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오늘 상정된 13건의 법률안은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위원님들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11인)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윤준병 임미애 임호선	더불어민주당(6)
	김선교 박덕흠 서천호 이만희	국민의 힘(4)
	전종덕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해양수산법안심사(7인)	문대림 송옥주 이병진 주철현	더불어민주당(4)
	◎정희용 이양수 조경태	국민의 힘(3)
예산결산심사(9인)	◎윤준병 문금주 문대림 송옥주 이병진	더불어민주당(5)
	김선교 박덕흠 서천호 정희용	국민의 힘(4)
청원심사(5인)	이원택 임호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3)
	◎조경태 이만희	국민의 힘(2)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9인)

김선교 문금주 문대림 박덕흠 서삼석 서천호 송옥주 어기구 윤준병 이만희
이병진 이양수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정희용 조경태 주철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공춘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최명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이시원
해양정책관 김용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강호동
전무이사 지준섭

상호금융대표이사 여영현

농협경제지주회사

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농협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회장 이석준

농협은행

은행장 이석용

농협생명보험

대표이사 윤해진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 서국동

한국마사회

회장 정기환

경영관리본부장 추완호

고객서비스본부장 김종철

경영기획실장 류원상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박병홍

기획조정본부장 유송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노수현

부원장겸총괄기획본부장 서형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이종순

부원장 안재록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서해동

농어업정책보험본부장 백종철

투자운용본부장 박춘성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부장 위성환

전무이사 이영길

축산환경관리원

원장 문홍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김영재

한식진흥원

이사장 임경숙

사무총장 김대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원장 안호근
부원장 구본근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최무열
산림산업이사 최돈하
산림자원이사 고락삼
기획혁신본부장 이승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원장 남태현
미래전략본부장 연성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직무대행 이석우
전략본부장 김현철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경영본부장 진규호
운영본부장 홍성준
건설본부장 이상권
인천항만공사
사장 이경규
경영부사장 김순철
운영부사장 김상기
건설부사장 정근영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박성현
경영부사장 황학범
운영부사장 홍상표
개발사업부사장 권동진
울산항만공사
사장 김재균
경영본부장 이형락
운영본부장 정순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원장 김민종
경영본부장 유기종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장 최완현

경영관리본부장 김종문
국립해양박물관
관장 김종해
국립해양과학관
관장 김외철
경영지원본부장 김병곤

【보고사항】

○의안 회부

농어업회의소법안

(2024. 7. 8.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1)

이상 2건 7월 9일 회부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1)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2)

이상 5건 7월 10일 회부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4)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

(2024. 7. 10.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1)

이상 8건 7월 11일 회부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6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4)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1)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2024. 7. 12.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5)

이상 12건 7월 15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8)

7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7. 11.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2)

7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2)

7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